

제목: 난 업그레이드가 싫어!

정치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 얘기하기로 한다

=====

그 옛날 MS-DOS 5.0이 출현했을때 그야말로 나의 Pentium 60 컴퓨터는(60Mhz) 그야말로 날아갈듯 빨랐다. 메모리 관리자(상용메모리를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추가되고 그야말로 5.0버전의 출현은 덩치에 비해 비교적 실속이 있는 편이었다. 물론 이전버전에 비해 필요없는 파일들의 갯수가 많이 늘어났고 동일한 실행파일인데도 파일크기가 조금씩 늘어난건 사실이다.(이건 윈도우 내에 있는 DOS실행 파일에선 더욱더 심각하다)

문제는 6.0이후 부터 나타난 프로그램의 크기에 관한 문제와 불필요한 업데이트에 관한 문제다. 분명 윈도우95의 출현은 본격적인 GUI(아이콘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도스 5.0에서 6.0으로 넘어갈때도 그랬지만 윈도우 95이후 나타난 윈도우98부터는 MS사가 도스용 랭귀지와 비주얼 랭귀지를 대변하는 통합개발환경을 코드최적화에 맞추기 보다는 쓸데없는 코드를 생성시키는 것에 열중해 왔다. 물론 운영체제 자체도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느려졌지만 말이다.

그런결과 실행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프로그램의 덩치는 쓸데없이 커져만 갔다. 업데이트를 성능과 최적화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급속하게 발달하는 하드웨어 환경을 돕기라도 하듯 MS사는 계속 H/W 자원을 잡아먹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 대로 업그레이드 하기에 바빴고 개발자는 개발자 대로 새로운 랭귀지를 습득하는데 돈과 시간,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재미있는건 개발자가 새로운 비주얼 랭귀지를 익혀 열심히 개발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이전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느리게 동작한다는 점이다

서버가 보급되고 윈도우2000이 출현했지만 이미 그 프로그램 규모와 개발자를 위한 컴파일 환경은 거품처럼 커질대로 커져버린 상태라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윈도 ME와 윈도 XP같은 프로그램은 MS사가 얼마나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다.(이 두개의 프로그램을 깔면 시스템이 엄청 느려진다.그렇다고 O/S 구조가 획기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만 해도 그렇다. 업데이트를 해도 안정성은 좋아지질 않고.. 기존의 것을 더 편리하게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느리게 만드나 그 궁리만 하는것 같다.

처음 어느때 부터인가 MS의 전략은 기존 코드를 최적화 하거나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컴퓨터 H/W 제조업체(CPU나 하드, 보드 등)를 지원하는데에 열중하기 시작했다.(거기에 대해 어떠한 댓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하지만 독자들은 하드웨어 시장이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자) 그것은 MS사가, 한국의 소비자들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는 돈을 펍펍 쓰지만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짝돌이라는 걸 언제부터인가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그래서 지금도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웬만하면 옛날 프로그램 쓰고 윈도95가 계속 보완되지 않은 것(성능위주로 완벽해 지는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지금은 컴퓨터 생긴 이래 통산 3번째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고 윈도 98과 윈도2000을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요사인 FSB가 466Mhz이다 CPU속도가 1900플러스다 하며(실제 동작속도가 많이 차이난다) 소비자를 쓸데없이 현혹시키는 사양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제와 많이 다른것이 현실이다.

요사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몇가지 조언할게 있다. 업그레이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써보고 업데이트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점이다. 잘못하면 크고 느려진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고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하자. 물론 하드웨어는 처음 구입할때 품질보증 기간을 꼼꼼이 챙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요사이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적어도 1년 이상인지 체크할것! 컴퓨터 1년쓰고 버릴것 아니라면..)

왜 필자가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싫어하는지 이해가 가는가?

제목: 저도 그 도면 보았는데 회장님 어떻게 된건가요?

20만원이나 들었대구요? 회장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왜 그날 사람들에게 설명도 안하고 설명회 끝내셨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속판인지 알수가 없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마지막에 전지에 확대한 도면과 문서를 보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었으면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또 디지털캠코더도 구입한 다음 동대표회의 방송에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올릴 문서1.txt

그저께 있는 동대표회의 내용도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번 회의때 전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해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홈페이지 같은데라도 공지를 해주셔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보고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회장은 핸드폰 전화를 해도 계속 안받고 제가 공지부탁드린다고 사전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실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회의내용 공지는 관리소 분들에게 시켜서라도 알려 줄 수 있는것 아닌가요?

또 305동 경비원 아저씨가 택배 물건을 안 맡는다는 어느 주민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희동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 사는 주민으로서 정말 패심한 생각과 함께 그런 경비는 필요없다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회장이 당선되신 후나 이전 동대표들이나 뭐 바뀌는게 없는것 같네요. 핸드폰 안 받는 건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똑같구요.

이 얘길 듣고 회장님께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난곡로 문제에 힘쓰신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우려고 노력했구요. 허나, 동대표회의 내용공지 같은 것들은 이전 동대표하고 뭔가 틀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

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정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헛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북한 미사일 레이더 정보를 흘린 당사자가 국방부고 그런 사건을 야기한 주체도 해당 북한 군당국자이다. 이는 곧 김정일의 지배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남한 쪽에도 최고통수권자의 뜻과 별개로 진행되는 군하부조직의 비협조적인 불응이라고 밖에 현재 해석할수 없다. 즉 최고 통수권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남북화해를 원함) 남북한 군당국자들이 일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사실 군이 남북화해로 무장해제되어 해체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아무도 그걸 원하는 내부자들은 없을 것이다.북한 같으면 군의 위상이 절대적인 상황이고 말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처해야 하는가? 즉 기존 극렬 반통일 보수 및 군하부조직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통일(통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북화해-38선 해체)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 눈을 뜨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정치권, 미국등 동북아 정세에 관계된 모든 주체 및 하부조직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것이다. (38선이 없어지면 군비도 줄면서 예산도 늘고 여러가지로 좋을텐데..그쳐? 더욱 중요한 건 한민족의 한을 풀고 남북한이 함께 대도약을 이룰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한마디로 동북아 긴장 및 탈냉전시대를 완전하게 지나가는 세계 대화합의 한마당이죠 ^^)

2. 수박 겉핥기 식 보도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요사인 필자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고 있지만 이따금씩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할 여유와 정보를 주지 않고 단편적인 보도만을 짜집기해 일련의 여론을 조장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논평처럼 말때문에 뚜렷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이 여론을 몰고가는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다.(방송사는 논평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소신이 없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에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마구 섞어쓰고 마치 한자가 흑세무민(국민들을 어지럽게 하여 속임)의 도구로 전략해 버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령도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와 조잡한 낱말을 나열한 것들뿐 어디 실속있는 면은 하나도 없다.(법령이 이해하기 어려운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과 보수세력, 나랏님들이 사용한 방법들인데 이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과 개혁세력들이(너무 이분법적인가?) 여기에 같이 휘말려서는 절대 안되고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다같이 힘써야 할것이다.

물론 방송같은 현재와 같은 수박겉핥기식 보도를 하루빨리 버리고 사건을 심층분석한 논평이나 시사교양프로를 낮이나 저녁 시간때에 적절히 배정해야 할것이다.(낮엔 온통 토크쇼나 스포츠고 저녁엔 앵무새 같은 뉴스 밖에 없으니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수 없다.그럼 잠안자고 시사프로 보란 말인가? 적어도 양식있는 주부들을 위해서라도 낮에 시사교양프로를 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제목: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도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다음'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만 타고 가는것 같더라)
가까운 동네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는 금방 눈치챌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가는데, 또는 직장인들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러시아워때 막히는 시내도로를 시간을 담보하고 먼거리까지 타고 가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

근데도 이번에 버스업자들이 또 요금인상을 꾀하고 있다. 요금을 내려서 사람들을 많이 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하지만 고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 올려보자는 심보다. 고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좀 더 뜯어내자는 심보다.(필자는 이번에 요금 올리면 절대 버스 안탄다. 참을대로 참았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럼 당번에 또 요금 올릴건가? 올리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요금을 500원으로 다시 내려라. 그럼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버스를 다시 이용하겠다. 서울시의 시내교통환경 개선도 하나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요금 올리는거 절대 반대다.(즉 껍 막히는 도로 개선) 인간들아 경제공부좀 해라. 가격만 올린다고 매출이 늘어나냐? 가격을 내리면 매출이 늘수도 있다는걸 모를리 없는데..

니네들 그따위식으로 해봐라. 내가 버스 타고 다니나. 뭐?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시민단체들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볼꺼다. 한통속이 되어서 요금을 올리는지 두고 볼꺼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가지 버스업자들의 수익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동안 출퇴근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때 사람들이 몇명이나 타는지 계산해 보라, 그다음 그걸 하루 영업시간으로 곱해 수익을 한번 계산해보도록..(버스한대당) 그다음 한달로 다시 곱해 운전사월급과 기름값을 빼서 업자가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 보도록.. 아마도 지금과 같은 버스불경기에도 만만치 않은 액수가 나올것이다.(업자는 버스를 수십대 가지고 있으니 액수는 더욱 커진다)

이 개새끼들과 그 일당들은(버스정책심의의~ 머 어쩌구저쩌구?) 가뜩이나 막히는 시내도로에서 요금을 내려 버스이용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안이하게 요금을 올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가 열이 안받을래야 안받을수가 없다.

동네 마을버스 노선조정도(공해문제 땀에 극히 일부노선 조정) 지네들 노선과 겹친다고 철저하게 가로 막더니 이젠 한술더떠 서민들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이젠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만들려고 하는지..(낮엔 한가해서 서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또 인상률은 지네 멋대로 16%로 책정하고, 물가인상을 그 것이 주도하리라는 것은 뻔한데 정말 어이가 없다. 물가상승률은 3~4%인데 네다섯배로 올려받을려고 하고 있으니 물가가 안올라?

어쨌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까라 업자들까라 서울시 담당자까라 모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뭐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틀버스 문제로 버스업자들이 서민들을 울리더니만 이번에는 또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을 울리는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행정과 ☎02-3707-9731(전화받으시는 분이 다 책임이 있는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위에서 다 지시하기 마련이므로..그 주변의 일당들을 어떻게든 족쳐야 하는데..)

제목: 개인 금고의 부실여신을 정부에서 매워주는 웃기는 작태..

아무리 구제금융시대였다고 하지만 재벌 개인금고의 부실한 금융을 정부에서 공자금이라는 공적수단으로 편법 지원해주었다는 사실은 정치와 경제의 유착을 의심해 볼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다.(즉 정치인이 재벌의 청탁을 받고 공적수단을 동원함..)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 흥청망청 지네들 계열사에 부실대출해주고 나서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공자금을 받아서 예금자들 보호한답시고 자금을 융통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망하게 내버려두면 체질이라도 개선될수 있었다고 하지만 남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한국 정치인이 그당시 발벗고 나선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 있는것 같다.

제목: 농산물 가격 폭락..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소비감소로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산 농산물도 속속 들어오고 가격경

올릴 문서1.txt

쟁력도 문제고 농민들의 마음만 애타는 때가 아닌가 싶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 때문에 농민들 생계가 말이 아닌데 당국은 이것 아는지 모르는지...(다른 사람의 땅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민들의 아픈마음을 달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농산물이 공급과잉이므로 지방을 개발해서 2차나 3차산업으로의 재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랏님들은 지금 뭘하는지 시골에 가보면 허름한 도로에 썰렁한 농토뿐, 서울만 사람들과 빌딩들로 머터지고 지방은 하나도 개발을 안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청계천 복원..
40여년전에 복개한 하천을 다시 뜯어낼 바엔 왜 그때 덮어 버렸는가? 이제와서 다시 거액의 돈을 들여 뜯어낼 바엔 그냥 가만히 두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뭐 뽐족한 환경대책이 나오는건 아니다.
괜히 청계천 주변 상인들만 힘들게 하지 말고 멀쩡한 도로, 보수나 제대로 하는걸로 만족하기 바란다.

제목: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의 꼬라지를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 기득권 언론과 그 일당들의 DJ정권 흔들기와 동시에, 회창 띄우기의 작태는 정말 극에 달하고 있다.(국민의 정부 말기에 활개치는 親朴-이회창지지세력- 게릴라들이다) 그것은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오늘, 국민연금의 평가손실 소식과 그뒤에 이어진 대선후보지지도 여론조사라는 일련의 보도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평가손실을 냈으니까 노무현은 안된다는 식의 여론몰이와 하나도 다를바 없다. 공영방송에서조차도 이러니 우리사회의 가깝고도 먼곳에 얼마나 천창 게릴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평가손실은 분명 주식가치의 하락이지만 아직 팔지 않았으므로 미래가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연기금의 주식운용에 있어)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앵무새 같은 여론조사를 퍼트리고 있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무관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혼자 신명난듯 떠들며 던) 소외된 사람들의 고뇌와 잘못된 교육열 등에 대한 소신있는 보도를 하나라도 더 많들여라.

너희들이 악의에 찬 여론몰이에 광분하고 있을사이 너희 자식들은 '잘못된 교육열'이란 전쟁터에서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가 죽을수도 아님 미칠수도, 그것도 아니라면 좌절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빠질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제목: 전 부품 처분하려고 3천원 받으려 범계역까지 걸어갔다왔습니다.

2만원 인상이 적다고 반납했다고요? 1년 재계약 전에 인상해준 것도(비정상적으로 이런일이 몇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고마운 일이지 반납서명을 받으셨다니 직원분들께 실망했습니다.

전 컴퓨터부품중에 AT파워를 처분하려고 관악산을 넘어 범계역까지 걸어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 지하철을 타긴 했지만요. 그게 중고부품값 시세가 5천원 정도 했는데 빨리 팔려고 3천원에 내놔요. 그랬더니 안양쪽에 사시는 분이 사시겠다고 전화가 오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건네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도 안남겠다고 하시면서 5천원을 주시더라고요. 하하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
지금은 ATX파워(AT파워보다 뒤에나온 파워죠) 남는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아나바다에 내놓으면 누가 그냥 가져갈라나요?

다른아파트의 직원분들이 얼마 받는지 저도 유인물로 대충 보았지만 우리 아파트 같으면 지금 직원분 13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분들 모두 평균급여 200만원(퇴직금포함-현재는 2백이 못되지만)을 맞추려고 하면 인원을 두세명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사실 관리실 4명에 전기실, 기계실 6명 정도로도 충분히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인원이 많으면 업무분담의 공백이 생길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관리직원 13명에게 모두 월급을려주는것도 사실 부담이고요.

직원분들이 다른아파트 비교할것 같으면 불만의 골은 한없이 커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아파트가 비정상인 아니라, 다른아파트들이 비정상이고 우리아파트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경수 소장님이 글을 올리셨을때 소장개인의 뜻 뿐 아니라 대원종합관리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수수료말고 대원계열사라고 알고있는 경비구역이나 청소구역에서 실제로

올릴 문서1.txt

수고가 많으신 분들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저도 들어서 잘 압니다.

허나 그건 대원에서 중간에 챙기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고 (관리비내역과 실제임금을 비교할때)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선 위탁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해보고 싶은 대목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리소직원분들 별로 만나보질 못해봤고(경비아저씨야 매일 보죠) 홈페이지에서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근데 이번에 김경수소장님이 사직서 낸다음 장문의 글을 올려셨네요? 있을때 올리셨으면 더 좋을뻔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2백만원이란 돈은 적은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수가 한달 내내 꼬박일해야 일당 300만원 받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경비아저씨들은 좀더 임금을 올려줄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비가 부녀회에서 별도로 더 나가고는 있지만요..

이상입니다.

<후신>

관리소장님이 제가 올린 글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으시면 직원분들이 평소 하시는 일을 죽 적어서 정리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칼럼지기 게시판1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도 한 2년.. 하지만 가슴속에 항상 맴도는 생각은 이제 무엇을 할까? 인것 같습니다.

비오는날 오늘 무엇을 할지도 계획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들은 영생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는지 제가 생각해도 좀 우스운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변을 둘러보느라 칼럼을 못쓰고 있지만 제 칼럼은 평생 살아있을 겁니다. 언제나 여유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칼럼을 자유롭게 쓸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애긴 현재는 칼럼에 시간을 할애할 개인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카페의 게시판이 처음보다 많이 썰렁해졌어요. 은숙님과 저랑 단둘이 게시판을 지키고 있는것 같네요. ^^

모든 일의 진행엔 절정과 침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을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일상을 살다보면, 언젠가는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금 들리는 팝송 "I Owe You.."를 같이 띄워봅니다.

그 유명한 사블128PCI입니다.

듀얼보드에서 윈도2000으로 현재까지 사용했던 제품을 파는것입니다. 호환성은 사블이라 정말 좋고요(윈도98에선 당연히 됩니다), 처음샀을때 있던 박스, CD, 케이블, 설명서 다 있습니다. 새 제품과 똑같습니다. 뜯을때 있던 비닐만 없네요. ^^

아끼는건데 안팔리면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고로 소리는 정말 훌륭하고요 크게 들으려면 별도의 앰프내장 스피커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앰프내장 스피커임.)

위치: 서울 신림동

연락처: ☎02-883-5482 018-209-5482

이름: 이윤찬

제목: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려는 자세는 지양돼야..

오늘 초등3년 진단평가도 처음 치뤄졌고 공교육의 부실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시험지로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우리사회 풍토에 대해 한마디하려고 합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첫번째 이유=>

우리 사회의 소위 시험을 통해 출세한 지식인층, 지배계층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말도 경청할줄도 모르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걸 TV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엘리트계층이 시험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나머지 쓸모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며 들어간후엔 적응에만 열중한 나머지 창의성은 눈을뜨고봐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보직이후(합격한 다음 일을 맡

은후)의 매너리즘은 말할것도 없구요.(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입이나 입사시험에서의 시험지로 분별되는 가치가 거의 절대적이다 보니 위와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즉 평가가 직업을 위한 여러가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이라는 절대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죠.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이고 시험은 부가적인 것이라면 지금은 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어 시험이 목적이고 올바른 직업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두번째 이유=>

개인의 능력은 여러가지로 발현될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교육은 시험지의 동그라미 객관식 문제(우리네 주관식 문제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정답을 요구하죠)를 찰푸는 학생만을 양산하는 교육이다 보니 직업적으로 다원화된 인간이 아닌 편협된 인간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우리사회가 편협된 가치로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지로 학생을 평가하지 말아야하는 세번째 이유=>

매우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겠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문제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다원화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렸을적부터 철저하게 사전에 배제시키게 하고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우물 안개구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시험이란 것이 속성상 성적순이다보니 자연히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들어보니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시험지'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모두가 다같이 완전히 바꾸도록 힘써야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짜여져야 하구요.

이같이 거시적인 교육적 시각으로 봤을때 공교육의 정상화란 것이 학부모님들의 말처럼 시험을 보느냐 마느냐, 공부한자를 더 가르치느냐 마느냐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것이 교육이지요. 그래서 요사이 특기적성교육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나 공기업, 대학이 좀더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고 학교에선 시험지가 아닌 좀더 다양한 실기이론병행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수활동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으로나 학교예산으로나 이런 평가분위기를 적극 장려,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2003대입 레이더]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의견입니다

근데 EBS담당자 여러분, 지금 방송중인 <2003대입 레이더>의 시청자 게시판이 안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의견을 적습니다.

오늘 방송중에 아나운서의 진행발언 중에 "이제 수험생 여러분 10여일만 기다리면 하고싶은것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입시라는 폐해로 인해 대학교육이 부실로 이어지고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무슨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계층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마당에 마치 대입이 끝나면 모든것이 판가름나는 것처럼 "시험끝나면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감추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양 학생들로 하여금 당연히 받아들이야 하는 것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모두에게 각자의 자기 계발을 유도하여 사회 각분야로 진출할수 있도록 고등학교때부터 지도해야 하고 일부의 엘리트들이 대학교에 진학해 더깊은 학문의 길로 매진해야하지 않겠습니까?(고등학교가 끝이 아니죠) 일본에선 직장연구원이 노벨상을 받는 마당에 우리가 일본의 교육제도보다 훨씬 앞서나가서 더많은 노벨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아나운서의 발언은 피폐된 우리 교육현실을 EBS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부턴 EBS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도량이 되지 못할거라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방송이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교육부와 더불어 우리중등교육의 어두운 면을 색칠할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저의 작은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 이제와서 흠어지면 곤란할듯..

지금까지의 추진절차나 한빛과의 계약과정상의 문제는 분명 있었지만 이제와서 분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버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잔금은 지불하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찬반을 또다시 묻는 대표회의의 저의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에 이정석님의 의견대로 이제는 힘을 합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각자, 비오는 날이나 문제가 발생한 주변현장을 목격할 시에는 증거자료로 확실히 해두는 노력도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빛의 보고서가 완벽하지가 않고 현장사진도 누락된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뒤늦게 첨가한 롤러스케이트장 침수하자가 사진이 없습니다. 나중에 몇가지 빠진것을 요청하긴 했는데 또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을 나면서 우리아파트 공동구에서 갖가지 하자가 재발생할 우려도 있으니 주민각자가 조금씩 노력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받아내는데 조금씩 기여한다면 앞으로 주공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서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물론 주공의 하자보수 이행태도를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융통성있게 일을 이끌어나가는 자세도 꼭 필요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의석 과반수를 견제하라..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것은 국회의원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률에 달려 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묘사되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동네 아파트만 보더라도 동대표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면 그 아파트는 안봐도 뻔한 아파트가 된다.(비리의 온상) 동네에서 벌어지는 세력다툼도 정치와 비슷해서 서로 음해하고 국회와 똑같이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거나 여러가지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거금의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는 등 지금의 우리 정치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명목상의 관리비만 싸다고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사이 소수의 아파트 정치인들(?-대표회의나 부녀회 임원)은 관리비외수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거기서 뭔가를 착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잘 알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파트로 말하자면 동대표회장을 뽑는 선거와 똑같다. 근데 유심히 보면 아파트관리의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파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고 눈을 뒤집고 서로를 감시하는 모습을 엿보게 된다. 물론 그 두 파벌들도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관리비외수입(혹은 관리비) 못건드려서 한이다. 즉 공동재산에서 뭔가를 이득보려는 자들이다. 정치인들과 똑같다.

필자는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이들 동대표들과 회장을 견제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혼자 힘으로 이들을 견제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일개 국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투표권 말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개인적인 관심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되면 그 파벌들이 아파트관리(나라살림)를 독식하게 되어 관리규약(법제정)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당선됐는지 관심도 없는 주민(국민)들은 그들이 집행하는 여러가지 용역이나 물품구입에(나라살림) 설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냉가슴만 앓게되는 꼴이 되고 만다. 더욱더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집권했을때 우리국민이 치뤄야할 댓가다. 지난 국민의 정부를 되돌아봐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수의결 때문에 이용호게이트 같은 것들이 특별감사제가 도입되는등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들추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물론 이용호게이트 같은면 여권뿐 아니라 야권 쪽에도 대대적으로 연루돼 있어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들추어내봐야 서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허나 지금까지의 시끄러운 과정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좋은 신호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파워는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볼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힘(법률제정추진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지역색을 떠나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또 노선도 서민(노동자)의 편이 아닌 영남지역을 대변하는 사용자편(기업가or기득권)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절고렵다.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일이 될수도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국민이 정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론조사 소식에 서둘러 글을 작성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견제의 균형이 깨져 부지불식중에 모든일이 처리된다는 것만 말해두고 싶다. 대통령은 겉모습만 보며 찍는게 아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웅거하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며 생기는 부산물(특정업체를 봐주면서 받는 후원금 포함)을 노리는 집단이다.(동네 아파트 동대표들이 월급도 없이 아파트에 봉사하기 위해 추천서명 받으러 다니는것이 이상하지 않는가?-물론 정치인들은 월급이 있지만..)

자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TV토론만으로도 충분하다) 서로 견제하게 하기위해 이제 중요한건 힘의 균형이 아닐까 한다.
이것마저도 깨져버리면 나라살림의 미래는 보장이 없다.

<후신>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싶으면 후보들의 걸어온 과정을 잘 살펴보라. 이 후보는 과거 대법관을 지냈고 대쪽같은 이미지가 아들 병역문제로 추락했으며 권위주의 빈껍데기(외화내빈)의 경제통은 아니다. 정 후보는 아버지의 대업을 물려받은 기업인에 불과하다.(즉 이 사람 역시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노 후보는 찬조할 생각은 없지만 서민을 대변하는 색깔만은 분명하다. 비록 과거가 초라하고(사법고시출신) 정치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젊은 서민정치가 뿌리내렸으면 한다.(사용자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그들도 가정으로 가면 다 서민 아닌가?)

제목:응모..

전자조달시스템 이름공모 파일입니다.(이윤찬)

제가 두개를 응모했는데요, 그중 첫번째 파일입니다.
각 파일 편의상 한글97용과 2002용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

한나라당이 그걸 부추기고 영남 주민이 현재 개떼같이 거기에 영합(서로 뜻이 맞아 함합)하고 있는데, 지역감정 유발 운운하다니.. 나도 참에 지역감정 몰랐소.(총선때 TV연설을 듣고 노동당 찍음) 허나 한 나라당과 영남인들이 벌이는 지역쇼에 그 죄를 깨닫게 됐지요.(호남인들은 그나마 덜함)

영남사람들은 한나라당에 기대서 이기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런 심보로 계속 앞 뒤 안보고 그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있는 것이오.

결론적으로 내 얘기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개표를 해보면 국민들이 꼭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오.(물론 한나라당의 교묘한 지역술책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영남인들, 내가 보기엔 한나라당의 지역술책에 은근히 찬성해서 지네들만 잘먹고 잘살아보려는 심보 같은데 그런데에 비하면 김대중은 정말 양반인것 같네요. ^^

--

제목: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나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택을 몇백만호 더짓고 또 일자리를 몇백만개 더 만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초등학생도 더 잘 알고있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나 기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야지 주택 몇백만호 더 지은들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그 많은주택 그림의 떡이 될수밖에 없다.

또 실업정책만 보더라도 일자리를 몇백만개 더 만들면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어렵고 인력수급불균형(즉 지원자들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서로 다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각분야 여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그중에 우수한 인재를 고를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을 철저하고도 적절하게(전문적으로) 교육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벌위주 풍토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올릴 문서1.txt

즉 능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21세기, 여기에 발맞추어 직업교육의 새지평을 열어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다음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물론 큰 안목의 창의적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정책도 망각해선 안된다.

현재 대학교에선 학생들이 정원을 미달해 배출되고 있지만 3D에 해당하는 업종에선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을 대신해 저임금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형편이다. 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근로자들 중에는 저임금의 수많은 계약직 종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임의 소수 대기업 종사자들이 있어 임금편차가 크게 요사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학벌주의풍토와 또한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나라전체로 봐서 위화감만 조성하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편협된 가치로의 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결과 소모적인 학업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그 풍토를 조장한 우리사회전체도 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DJ처럼 실업정책에 있어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으로 공약에 임해서는 절대 안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기타개헌 논의,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앞에 당면한 긴급한 여러문제들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피상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는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 생각하여 해당제도들을 정비해 나가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제목: 방송의 대선 토론에 관해서..

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로 한발 다가서는 장족의 발전인 셈입니다.

물론 그곳 국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법안들이 다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혹 그것 후보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내용을 파일Down 뿐만 아니라 웹상의 화면에 게시했으면 더욱 좋을뻔 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의 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해 정치인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존 정치활동에 접목시켜 국민의 알권리나 투명정치 및 효율성 등에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될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내 정치계에서의 이런 새롭고도 놀라운 인터넷 신조류에 대한 세 후보님들의 생각과 앞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정치에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또 이를 활용한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해서 정치의 투명성과 참여를 제고시키겠다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신>

방금전에 KBS에 전화를 해서 대선토론질문을 접수하려 한다고 하니 별도의 접수절차는 없고 대선토론 위원회라는 법정기구의 해당위원들이 질문을 정해서 질문한다는 것이다.(해당위원들은 각계 교수나 보도국장이라)

그래서 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그중에 몇가지를 선정해 질문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어쩔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의 말이 가관이다 자기는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 하하,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2. 여중생 압사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여중생 압사사고 판결시위에 관한 뉴스에 비쳐진 DJ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SOFA협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의있는 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좋지않게 비춰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DJ의 손녀들이 만약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또다시 그런말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난 이번에 광화문에 모인 2천여명의 젊은이들의 열정에 대해 매우 존경하고 싶다. 비록 명분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비난과 소파협정 개정이라는 협소하고도 감정적인 취지였지만 같이 나가서 참가하지 못한 필자의 게으름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라고도 할수 있다. 아파트현안같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들에만 관심을 갖고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필자로선 부끄러운게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월드컵때 사람 조금 모인것 가지고 언론에서 미친듯이 대서특필해서(애국심을 조장하는 어용의 언론이란 말이 여기에 딱 맞을것 같다) 시너지효과(부추겨 서로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키더니만 이번에 이렇게 뜻있는 젊은이들의 의미있는 집회는 한줄의 보도로 끝내버리는 언론의 교활함에 다시한번 혀를 차게 만든다.

21세기의 길목에선 지금, 우리언론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취급하는 어용성(권력에 영합하여 행동하는 성질)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할 것인가?

<후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네들(미국) 나라에서도 군차량 사고가 나면 이렇게 무죄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미군이 면책특권만을 믿고 사고방지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확실히 재발방지 노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되면 SOFA를 개정해서라도 자국내 수준으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음반협에 대한 반론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아연실색..
그런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편이야?
법은 우리세상을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상업주의에 우리의 문화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MP3로 장사하는건 아니지 않는가?
돈 때문에 음반시장의 자멸을 자초하지 말자..
돈 때문에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지 말자..

제목: 교육개혁을 주장합니다.

5년 대통령 임기때문에 제대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교육의 현실..

창의적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 안에서 서로 1등을 다투며 시험문제에 파고드는 우리 학생들.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시험지에 운명지어지는 우물안개구리로 귀착될 뿐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지로만 인재를 뽑는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도록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낼수 없다고 본인은 단언합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자유분방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환경과 그런 인재들을 시험지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발굴해 내는 사회적 마인드와 실천이 다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부터가 의식적으로 먼 안목을 갖고 교육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EBS를 보니 난방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추운교실에서 공부한다는 웃지못할 보도까지 접하면서 과연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얼마만큼 교육적 투자를 하였는지 반문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밀하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무 안이하게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 오진 않았는지, 또 선생님들로 하여금 창의적 수업기법을 장려하지 못한건 아닌지 아울러 반성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사회 모두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좀더 거시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물론 특정분야에서 시험지도 병행할 필요도 있지만) 교육환경도 거기에 맞추어 바뀌어나가고 같이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건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그속에서 일하는 교육적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일 겁니다.

우리모두 서로가 환골탈태하여 교육의 새 패러다임(공통적인 마인드)을 만들어 나갑시다.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론 부가가치세가 통신요금이나 인터넷서비스요금에만 붙는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살다보니 아파트관리비에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경비원용역비는 최근에 대상에서 빠졌죠) 어느새 국회에서 이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아파트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세금만 받아간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비나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은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서비스를 대신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주민들 관리비에서 소요되는 비용에다 추가로 떼어 가서 부담을 지우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적용시켜 아파트 관리비상의 여러항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공동관리비에서 손쉽게 세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이렇게 부분별하게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세청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분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걸 방임하고 동조한 국세청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됐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식으로까지 세금을 받아가야 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정책건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의 등록여부를 알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2002년 12월 7일 11시경 용산의 업자와 인터넷 상으로 거래를 하면서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사업자 번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확인하고 세무소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산 세무소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글썽 여직원이 등록여부를 알려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선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그 업자를 그대로 믿는다는 건 위험한게 현실인데 세무소에서 등록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나 전자상거래활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거래하는 인터넷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안된다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소비자로선 무방비로 당할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제가 하는 말뜻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여직원은 회사정보는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안된다고 발뺌을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회사의 회계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다만 업자가 세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알아서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현재 이 문제는 전자정부 슬로건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는 내용이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자정부 하면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고 막혀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담당자님.

D.S

국세청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이 자신과 다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같이 입력해 그 사업자의 휴폐업을 조회할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개인은 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국민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기본적인 회사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인터넷업자와 거래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라는 것만 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일이 발생하더라도 추적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지금 용산 상가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맨 밑에 나오는데 다른 인터넷쇼핑몰이나 업자들에게도 이런 규칙을 확대적용시켜 안심하고 거래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지만 법적으로 더 강화시켜 규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자의 실존과 등록여부의 조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국민들을 위한 전자정부를 원하신다면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제목: 덧붙여 광화문 시위에 관해..

사실 미군이 저지른 이번 사고는 우리네 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에도 좁은도로에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등교하는 학생들,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교통사고들이 미군장갑차사건과 버금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군이 공무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때문에 이번에 이슈가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은 광화문 촛불시위가 밑바닥에는 이성적 사고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

습니다.

물론 미군이 다시는 그런사고를 빈발시키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겠지만 한 미동맹관계에 금이 갈 정도까지 몰아부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신>

어떤 분들은 미국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영토크기나 기술수준으로 보아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기는 당분간 힘들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제발전에만 전념하면 될듯 싶고(경제력이 곧 국력이므로) 더불어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되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자세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미.중.러 삼국 협의체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의 실제적인 핵처리 능력이 핵무기와 연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미.중.러의 삼국 협의체가 북한의 핵과 대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한다. 북한의 핵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미국의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가기로 한 대목은 무척 신뢰가 가는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제목: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 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 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치기 국회 땀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고 말했다.

DJ정부가 집권한 후에도 한나라당은 줄곧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여소야대(야당이 집권당보다 의석수가 많음)의 정국을 리드해 가면서 국민을 위해 얼마나 성실한 국회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권영길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과거정권처럼 DJ가 여대야소(집권당이 야당보다 의석수가 많음)의 정국으로 추진력있게 국정을 이끌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회창씨 같으면 그걸 견제하는 제1당 총재로서 지난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정말 제대로된 국회를 이끌어 나갈줄 알았다.

근데 역시 영남을 옹고 승리한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보다는 영남을 배후로한 기득권(정치권 or 특혜) 졸속 법안에만 혈안이 되어 과거 5년을 철저하게 독식해 버린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 같다. 물론 민주당이나 자민련의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합세한 면이

다분히 있지만 어쩌겠는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당사자가 국민들인 것을... 특하면 국회를 공전(노는 국회)시키고 시간 끌다가 막판에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보수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일조한 한나라당, 지금의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 것이다.

거기에 대해 이번에 권영길 후보가 뼈대있는 질문을 했다. 이 토론 대목에서 이회창 후보가 찢찢매는 것을 보고 솔직히 말해 필자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하하 웃으면서 속으로 난 이렇게 말했다.

"이회창씨 당신은 할말 없습니다.."

제목: 제가 처음으로 아바타몰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였습니다!

Daum 관계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다음 아바타몰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멜을 드리는 이유는 Daum을 이용하는 네티즌으로서 Daum을 항상 예의주시하여 왔고 노력하는 모습, 저 또한 그런 모습에 항상 감탄하면서도 정작 유료상품을 구입하는데는 주저하였습니다만, 오늘 기분좋은 칼럼을 쓰고 난 다음 내가 Daum을 위해서 최초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사치스런(?) 아바타아이템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혹 본인을 필두로 아바타몰이 성업을 하시더라도 너무 거기에만 신경쓰시지 말길 당부드리며 기존에 있는 Daum의 독보적인 콘텐츠와 아이디어들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바타몰을 샅샅이 뒤져서 몇개 구입했는데 사실 전 이런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그나마 눈에 들어온게 있었으니 다행이네요. ㅎㅎ

아이템 고르느라 너무 늦었는데요, 항상 발전하는 회사가 되길 기원하면서.. 다들 수고하십시오~

제목: Daum의 '문화대통령' 특집기획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올리신 글 잘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향유하는 여가로서의 문화(삶의질추구)가 강조되고 있는것 같습니다.대통령이 문화적 마인드가 있고 국민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돈 잘 벌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줄수만 있다면 그리 꿈같은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생활의 지역화(동네중심)는 제가 생각해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문화낙후지대라고 말하는 이유인것 같구요.

문제는 정치가 그만큼 정교하지 못해 모든 국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만한 여유가 없게 된 현실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정치,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요.

모든 국민들이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수 있는 여유있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근데 새대통령은 이걸 인식하고 있는걸까? --)

제목: 한빛용역보고서에 대한 최종입장.

이정석님, 이번에 꼭 출마하시겠습니까? @.@

까지것 학력,경력 숨길건 또 됩니까?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능력있고 일만 잘하면 되지요.

--
이선생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동대표에 출마해야 할텐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이숙천씨 요구, 그냥 수용해서 떳떳하게 우리아파트를 위해 일해주셨음 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선거에 있어 기본 아닙니까? 저도 뭐 변변치 못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릴건 전 어느누구의 편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하자보수용역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전화로 제가 이문숙 회장님께는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부분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잘 마무리해 달라고만 얘기했는데(즉 주공측에 용역보고서를 무기로 하자를 마무리함) 보상비용청구에 관한 문제등(용역보고서에 보상비용이 2억원 가까이 나왔죠) 굵직굵직한 문제를 이선생님이 명쾌하게 풀어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 이렇게 늦은 시점에(동대표들의 책임이 큼) 그렇게 부실한 용역보고서(그 두꺼운 책 2권중에 중요한 내용은 얼마안됨)를 가지고 주공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선 보도블럭 수선한것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나무도 죽어자빠진거 그대로고 누수나 결빙도 확실히 해결된것도 아니고 이제 3300만원도 들어갔으니 확실한 100% 승소 아니면 이후 소송 문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뭐 지금까지의 하자용역 추진과정도 문제가 있었고(80%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한빛이 일정액을 후불로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동대표들이 거부함) 회장님께서도 공식적인 후속조치 한마디 없으셨고..(다들 주민들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음) 아무튼 지금까지 동대표들이 해온것 보면 도무지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 3300만원 용역준것, 괜히 돈만 날렸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그당시 용역찬반 물을때 이곳 게시판에서 뒤늦게 제가 "하자조사 확실히 하자"고 할땐 전 한빛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았고 이제와서 별도의 비용이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할바엔 차라리 후회하고 말겠습니다.

앞으로 동대표님들은 누가되시건 우리 아파트 관리비외수입을 이토록 어처구니 없게 소진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좋은데 쓸수 있는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방송사들이 '미디어'를 강조하는 이유..

선거기간중 방송사들이 그렇게 떠들던 '미디어 선거', 그 '미디어'란 말의 뜻을 주문해 보면 컴퓨터와 인터넷, TV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말은 어느때부터인가 방송의 입장에서 다른 매체들을 바라보며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것을 눈치챌수 있다.

'media'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체'란 뜻이다. 그래서 'mass media'가 '대중매체'란 뜻으로 사용되는데 필자가 보기엔 컴퓨터와 인터넷을 TV와 함께 '미디어'란 말로 같이 취급하기엔 컴퓨터와 인터넷이 너무 손해를 보는감이 있는것 같다. 즉 현재 컴퓨터에선 TV수신카드가 있어 얼마든지 TV를 시청할수가 있는데다 컴퓨터란 세계에서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점은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독자들이 너무나 잘알거라고 생각된다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자리를 굳힌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매체를 '미디어'라고 부르는것보다 CBI(Computer Based on Internet-인터넷에 기반한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뿐했다. -읽을땐 씨비라고 읽을까? 그러고보니 티비와 발음이 비슷하다 ^^

방송사들이 요새 이 씨비의 위력때문에 위기위식을 느껴 '미디어'란 말을 만들어 냈지만 도무지 어색해서 귀가 간지러울 정도다. 씨비의 출현은 분명 TV와 달리 디지털이란 출신성분부터 다른뿐 아니라

행동반경과 영역도 크게 차이가 난다. 씨비가 TV를 큰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개념으로서의 '씨비'란 단어가 더 적절할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대규모의 전국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있어온 이곳 Daum커뮤니티에 대한 보도도 일체 통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마디로 엄청난 위세를 잠재우면서 상대적인 소외감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입지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해야할까? ^^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씨비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티비수신카드로(아님 일반 TV로) 항상 방송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니깐 말이다. 이번에도 선거방송을 TV로 지켜보긴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의 지역별 투개표현황이 더 빠르고(선관위 속성상 표집계가 실제로 더 빨랐다. 혹 방송사들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입맛에 맞았다는 것은 씨비가 기존 TV와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

제목: 새해엔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적극적 실업정책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사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매우 두터운 벽이 놓여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걸 슬기롭게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 남북이 하루빨리 38선을 없애고 협력교류할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남북민족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았지만 체제(권력)라는 골 때문에 지금까지 대치하여 왔다는 것 또한 깨닫지 않았습니까?

또 본인과 같은 장애청년실업자가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업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바램또한 욕심을 내어 봅니다. 여기서 적극적 실업정책이란 국민이 자발적실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 실업상황으로부터 정부가 실업자로하여금 거기서 뛰쳐나와 작게나마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실업정책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저같은 학업에 대한 실패 때문에(잘못된 교육문화 땀에-유전적 취약점도 있었겠지만) 병을 얻어 정신장애3급으로 평생 약을 먹게 됐지만 자신감 결여 및 부작용 때문에 여간 일하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다른 장애인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인들과 달리 왕성한 활동을 할수 없기에 거기에 맞는 배려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취약한 계층의 사람 하나하나가 보람되게 일할수 있는 사회가 모여 밝은 우리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행복한 이웃이 있을때 나도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논리지요.

새해엔 이 두가지가 제대로 성과가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수위에 보내는 국민제안 3가지..

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털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나 하면 잘못된 교육문화 때문에 고등학교때 몸쓸 병을 얻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직입니다. 그래서 제 칼럼에선 항상 교육제도와 이상적 사회에 관한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딱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개선에 대한 것과 둘째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대한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관한 것인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것,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세제개선에 관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토지세, 재산세)를 늘리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겠다는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서라고 그럴듯 하게 포장돼 보도되어 있었지만 본인이 느끼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저같은 장애인에게서조차도 나중에 가서 보유세를 받아챙겨서 나랏님들 녹봉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가라앉히겠다고 하시면서 수도까지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시고선 또 양도세 부과기준을 정부가 얼마전에 강화시키기까지 했는데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투기억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번 인수위의 세제정책검토에 대해 장애인 세제개선이란 보다 차원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세제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거론한 보유세(종토세, 재산세) 등에 대해 현행 세법으로 장애인들에게조차도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집은 아파트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땅 조금 있는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돈을 못벌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는것에 만족하시는지 절약하면서 살고 계시

올릴 문서1.txt

지만 제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도 제가 낼 형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재산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럼 그때가면 집을 팔아서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밖에 되는것 아닌가요? 그럼, 이쯤되면 전 인수위 관계자여러분께 양자택일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즉 저와같이 병으로 자립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힘껏 돈을 벌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시든지, 아님 장애인들을 위한 세제경감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첫번째 정책제안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투명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4대보험정보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가보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진료내역에 대해 확인할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 확실히 마무리지어(현재는 서비스가 불량함) 4대보험에 관한 확실한 투명운용에 관한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 과거 일을 거의 못해서 납부이력이 불과 몇건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를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하고 매우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견실한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로 인해 서울의 주변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을 위해 관악산을 자주 오르는데요 꼭대기에서 서울을 바라보면 고층의 아파트들이 서울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뻗어 있어서 서울이 아파트 동네인지 사람사는 동네인지 모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동네는 서울 외곽의 산동네를 개발해서 생긴 재개발지역이어서 위해환경요소도 없고 주위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바라본 아파트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위환경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 그늘 밑에 가려진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햇볕을 못받는것 그 자체가 환경의 황폐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발도 좋고 돈도 좋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난개발입니다. 차리리 지방이 개발되도록 SOC를 확충해 일자리를 만들고 시골을 녹지와 위락시설 위주로 도시계획을 해서 여유있게 구획된(단지 간격이 넓어 햇볕이 잘 들도록) 지방전원아파트촌을 유도하심이 적절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가지인데요 인수위에서 국민정책참여공모를 상설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제안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번과 같이 작게는 저를 위한, 넓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일 것입니다. 그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련의 보도에 대하여..

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핵문제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교묘하게 이용당할 우려도 다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 자세에 있어선 이런 양면적인 시각을 다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목표는 북한과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끈고려운 북한당국자들을 상대할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북한당국이 요사이 국제무대에서 비판받을 행동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겉고렵다"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체제도 이제는 개방쪽으로 가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이제는 중요하다. 물론 국제사회 쪽에는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작업을 병행해야 할것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동북아의 핵위협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어지는 현실이다. 즉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보도들이다.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출발한 왜곡된 보도로서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국제적 여론몰이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이 말했지만 자신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력생산에만 이용할 뿐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근데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이 지금 막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떠돌아댄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디게 헛갈리게 하는데.. 어느것이 옳은지는 핵사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개방의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는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당연한 거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의 핵균형을 깨트린다면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적 압력을 받을수밖에 없다)

이것이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문제의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까?

<추신>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안심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로 하여금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

올릴 문서1.txt

하도록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당국자 사이에 핵사찰을 합의해서 핵무기가 없음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씹기만 하는것이 요새 핵문제의 형국인것 같다. 반대의 얘기지만 구체적 증거없이 우리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고압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글 잘 읽었는데요, 내용중에 약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주민등록전산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 가명이라는 것을 이용해 온갖 음해(범죄에 가까운)가 저질러지는 마당에 국민개개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들이 항상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비상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맹점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되 국민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전산화하고 그것을 중앙아 이디센터(국가기관-가칭) 같이 한곳에서 관리함으로써 개개인이 매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참조(전산용어)하는 형태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신뢰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터넷회사가 참조할수 있는 데이터범위는 한계를 두어야 하구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때만이 그걸 볼수 있게하면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없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보안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인터넷 상의 비실명과 거짓정보의 남발은 전자상거래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책임소재가 발생했을때 문제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무척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되 공개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걸 볼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같은 것을 설정하면 누구나 신용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Daum과 같이 닉네임을 설정할수 있게 한다면 누구나가 마음놓고 남의글을 읽고 자신은 책임있는 발언을 할수 있게되는 터전이 마련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및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입니다.

제목: 봉사정신으로 무장? <올 인>

간만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많아졌네; 동대표에 출마하실 정도의 분들은 다들 아파트 생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전 아파트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꼭 보면 순수한 봉사정신이라기 보 다 부수적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순수한지 아닌지는 더 두고봐야 아는 것이고... 무보수에 동대표 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닐 듯 하니까..... 현재 회장만 40만원 받습니까?

제목: 현대상선 대출의혹 보도에 대해.. 2003.01.29

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뒀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

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유했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근거없는 뉴스를 언론에 제공한 것이 틀림없다. 결국 그런 학원들이 올해 많은 재수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언론이 은근히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사실 수능이 끝나고 교육부나 대입학원등에서 전국의 응시생을 상대로 재수생과 재학생 별로 일대일로 성적을 조사해 공식적인 통계를 잡은 것도 아니고 '재수생 강세'란 결론을 선불리 내린것에 대해 필자는 매우 의아심이 들었다.

재수를 하면 성적이 이전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학원은 학교보다 구속력이 훨씬 적은데다가 주변의 많은 유혹들을 적절히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전 '재수생 강세'란 보도는 이번에 서울대 합격생 유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근거를 정교하게 의심해봐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지금의 고3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마지못해 재수를 선택할 거라면 신중히 결정하자.

이렇듯 방송들은 근거가 없는 사실들을 짜맞추는데 도사들이다.(혹 학원들과 유착이 있었나?) 담 입시부터라도 혹 방송에서 '재수생 강세'란 표현들이 또다시 고개를 든다면 우리 학생들은 명확한 통계적 근거를 방송에 요구하며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채팅의 가정파탄 위험성과 장시간 PC사용시 혈전증, 보도에 대해..

요새 화상채팅이 인기다. 여기에 대해 시샘이라도 하듯 뉴스에서 채팅에 대한 가정파탄 위험성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는 것을 보고 방송의 특유한 "확대해서 씹기"에 가벼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물론 일부 이용자들의 음란성 채팅과 중독적인 채팅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건전한 만남의 장으로 채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문자채팅)이 아닌 화상이란 현실적인 도구로 채팅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성도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올릴 문서1.txt

또 한가지 장시간 PC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당연히 PC를 한자리에서 7~8시간 이상 사용한다면 건강에 좋을리 없다. 그래서 필자는 평소에 심신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는데 그런 보완적인 방법을 방송에서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비행기 안에서 7~8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증이 온다는 것을 들었는데 PC사용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얘기겠지만 꼭 PC사용자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오랜시간 한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사람은 정맥류에 걸리기 쉽다는 예와 같이 평소 경험해 봐서(오래 있으면 무리가 온다) 아는 얘기들을 소재로 건강의 예방법을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이다. 괜히 PC사용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이다.

3. 인수위의 철도운영 공사화 추진 보도에 대해..

과거 DJ정부 같으면 정부투자기관(공기업)들을 으레 민영화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수위가 밝힌 철도공사의 운영부문에 대한 공사화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신중한 자세와 유연한 처방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민영화 했을 때의 경쟁력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런 자세로 다른 공기업들도 평가 조정해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목: 자료실 부연설명

제가 관악구에서 얻은 2003년도 예산안정보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앞부분에 행정관리국장의 의회발표내용이 나와있고 뒷부분에 구체적 예산배당표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지만 일반행정 부분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주로 인건비)이 소요되는데 구청의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봐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셔서 1년동안, 과연 내가 제대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한번쯤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을듯 합니다.

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땀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의미도 퇴색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대상선을 통한 자금대출과 북한송금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과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와 계정에서 출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출은 얼마간의 이자로 기업에 꾸어주는 것이고 대북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인만큼 둘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묘사인 모습은 대출인지 지원인지가 불분명한데다 별도의 확보된 대북지원예산이 있어 그걸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현금지원한 것인지부터가 애매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며 그 절차와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적은돈이 아닌만큼 돈의 출처와 명목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만 하겠다.

모든것이 그렇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 있다면 분명 떳떳하지 못한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치권자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는 사법적처리는 유보하더라도(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잘한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해 잘못된 것은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추신>

한가지 더 궁금한건 북한에 지원된 현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북한 체제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그 용도가 궁금하지만) 남북경협에 사용되었는지 북한주민구호(가능성이 희박하지만)에 사용되었는지 무지 궁금하지 않는가? 적은 돈도 아니고.. (4000억원이면 아파트 대규모단지 2개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제목: 다음 이슈에 보내는 편지..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3월에 새로운 기획을 개설하신다구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

저의 부족한 글을 나름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개

인적으로 무척 흥분되고 영광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Daum칼럼에서 이 사회에 관한 많은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정작 의욕을 갖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목: To PaPaI

Dear PayPal company,

During the payment in some other company, your company's payment system was connected. Because of time limit for input, The payment was canceled. Also, I didn't know that there is membership fee(1.95\$). (Later I found that there is a statement for membership fee) But, your company requested membership fee to my credit card company.

I STRONGLY want you refund membership fee.
Also, after I remove account in PayPal, please remove all my information on your server.

Please reply ASAP.
Thanks.

제목: 다음칼럼 기고

프로필 사진은 아바타를 켜쳐하였습니다. 근데 참새가 날아다니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나 중에 혹 사진이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이름은 제 닉네임(희망의빛)을 보여주시면 되구요, 아래에 칼럼제목과 칼럼소개, 자기소개를 적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관한 것은 제가 두개의 홈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철학관 (<http://user.chollian.net/~blrun>)과 누나에게 만들어준 장애인사랑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netian.com/~blrun>)
가급적 둘중에 하나를 올려주시고 기존 Daum칼럼은 제가 별도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칼럼제목: 희망을 찾아서, 진실을 찾아서...

칼럼소개:
안녕하세요. 희망의빛™ 인사드립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거나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란 단어는 거짓없이 참되고 바름을 뜻하고요.
《희망을 찾아서, 진실을 찾아서...》는 여러분의 희망과 세상속 진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자기소개:
쥘띠생의 평범한 총각으로 등산을 자주하고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Daum칼럼에서 2000년 7월부터 사회·경제에 관한 내용을 연재해 오고 있습니다.

제목: 은행의 안전불감증에 관한 보도.. 2003.02.12

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

「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실제로는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 제안을 인수위에 제출하면서 인플레이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에 의해 '경'단위를 사용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정작 원화가치안정을 위해 이 디노미네이션 안(案)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를 넘어 매우 부정적이다. 오히려 화폐단위의 절하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판단 감각을 흐리게 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가속화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뉴스보도에선 그 제안이 마치 검토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 인수위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근데 한가지 의혹이 앞서는건 왜 제안에 불과한 이런 혼란스런 정책이 뉴스에 아무 여과없이 보도되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한국은행이 화폐발행에 들어가는 돈을 의식해 화폐단위를 절하하려는 의지를 인수위를 통해 전달한 것 같은데, 인수위 측도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올릴 문서1.txt

허나 간간이 논의되어온 10만원 지폐발행은 10만원권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되어온 현실에서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허나 위조지폐 관리(일련번호를 가지고 정확히)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위조지폐도 인플레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와 종이기술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 기업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은행의 안전 불감증에 관한 보도..

얼마전 은행에서 고객들이 버린 전표들의 정보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해간 범죄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건 은행들이 고객들이 버린 전표들을 분쇄해서 소각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그냥 반출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난 맨 처음 이 보도를 접하고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은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고객들의 비밀번호가 적힌 전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은행에 당장 전화라도 하고 싶었다. 현금카드만 복제하면 그 전표에 나온 비밀번호로 누구나 쉽게 돈을 빼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은행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다가 은행 돈 털리고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현금수송차 털려서 범인이라도 못 잡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 공적자금으로 또 손볼릴 것인가?(예금자 보호한답시고 부실대출로 처리해서 공적자금으로 손볼릴지 모를 일이다)

근데 어제엔 또 은행의 해킹차단기에 문제가 있다는 SBS뉴스가 나왔다. 인터넷 뱅킹을 하다보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해킹차단기가 급조된 해킹프로그램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보도다. 은행 인터넷 뱅킹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래가지곤 안된다. 누가 이래가지고 거액의 돈을 인터넷 뱅킹에 맡기겠는가?

근데 더더욱 문제는 관공서의 세금납부나 민원서류발급에 사용되는 전자결제시스템이다. 거기선 해킹 차단프로그램도 없어서 다른 은행에서 쓰는 공인인증서암호를 아무 보안플러그인(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없이 같이 사용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 때문에 그 암호가 유출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즉 다른 은행에서 이체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암호를 보안플러그인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은행은 그나마 해킹차단프로그램이나 보안플러그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관공서 전자결제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서 항상 사용도중 불안한게 사실이다. 거기에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도 다 유출될 것 같고 정말 사고나기 전에 빨리 시정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조만간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려고 한다. 독자들도 주의하기 바란다.

3. 인수위가 밝힌 추가공적자금조성 불가피성에 대한 보도..

일부 금융권의 부실로 인해 인수위가 추가공적자금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그 얘기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금융권의 예금용통부실(예금을 부실하게 융통함)을 순전히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은행들이 위 2번에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돈을 관리하고 가게대출이다 회사채매입이다 주식투자다 갖가지 돈을 융통하면서 생긴 부실경영을 예금자도 아닌 우리 선량한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망국적인 발상인 것이다. 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다가도 개인적으로 밝혔지만 추가공적자금조성, 일원도 절대 반대다. 다른 독자들도 이 사안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해야 한다. 당국은 "공적자금은 우리모두가 수혜자다"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은행과 정부의 유착이 있지 않는한 왜 책임도 없는 제3자인 일반 국민에게 변칙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가 말이다. 결국 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생긴 손실을 예금자인 국민들이 떠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바로 인플레이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부패와 더불어 말이다. 이점 깊이 인식하자.

4. 지하철 역사(驛舍)에서의 라돈 초과 검출..

지하철역 10여곳에서 라돈이 초과검출되었다는 보도다. 꼭 라돈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지하공간 속에서 신축역사의 자재나 전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해물질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일례로 독자들은 지하철역에서 변압기나 전동기가 타는 불쾌한 냄새가 이따금 우리 코를 자극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혹은 객차안 시트에서 지독한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꼭 라돈이 검출된 것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먼저 역에서 이런 기본적인 위해환경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데도 서울시와 철도청은 시민들 요즘올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할 권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전화로든 인터넷으로든 당당히 말하도록 하자. 그래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고쳐질 것이다.

제목: 앞으로의 모든 구매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좋은 의견 잘 보았는데요, 이정석님의 좋은 청사진, 분명 다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허나, 돈 많이 들어서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좋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조달하는 각종 물품들도 공공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높은가격에 조달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지금 그 차액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냐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릴 문서1.txt

이정석님하고는 평소 몇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조경이나 기타재료를 말씀하시는 가격이 방만한 수준을 넘어서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집행하시면 주민들이 느끼는 관리비 대비 체감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갖가지 의혹이 불거질 우려도 있구요. 그러니 각종 청사진을 위해 거래의 돈을 집행하시더라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투명하게 밝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의 가격비교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저렴하게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수선충당금 두배로 걷는것 별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전세입자인 경우는 주인이 내는 것이라라는 것을 명시하신다면 주민들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우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부과내역서에 관해..

1.부과내역서에 관해..

새로 편입된 부녀회 항목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올려주시라고 관리소에 말씀드렸는데 관리비내역서에 꼭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과 잡수입 예치금이 2002년 12월 현재 각각 1억579만7천여원과 6천232만9천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나머지 은행 예치금은 관리비선수금(2억6천459만5천여원)과 관리비입금예정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하자보수건..

현재 저희집은 세대하자가 경미한 상태고 다른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어떤 세대는 상태가 많이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동구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누수와 결빙 및 균열, 고사목 등.. 균열같은 것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보상을 받아내던지 완벽히 보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거래를 들어 한빛보고서(하자발취)를 작성해 보상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석님이 그렇게 주장하신.. 보고서 두권에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3.변전실 축전지..

DC12볼트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원과 비슷한데 방전볼티지가 낮은걸로 봐서 규모가 작은것 같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과 구매가격등을 감사님이나 내역서상에다 추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발전기는 정전시 같은 비상시에만 돌리는 것인데 몇번이나 켜다고 벌써 노후가 되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말씀하신 걸 들으면 관리소에서 평소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고 하는데 대원에다가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4.관리소 급여 인상건..

급여인상에 반대하지는 안겠는데요, 급여를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관리소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관리소 여직원 두명과 실장님, 소장님 외에 기계실과 전기실 9명에 대한 업무일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각 직원들에 있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인원들이 있다면 인원을 줄이고 개인당 급여를 올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일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문서파일을 그냥 첨부해서 자료실이나 관리사무소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5.조경사업 추진건..

조경 사업 정말 멋진 일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구요,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들어간 비용만큼 효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그럴려면 구매가격이나 추진과정에 있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나무들도 다 활용하구요. 그럴려면 특별수선충당금이 어느정도 모여야 하겠지만 그 사이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입찰도 인터넷이나 지면을 통해 완전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가격대비 질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을 봐서도 안되고 질만을 따져서도 안됩니다. 제 개인적으론 구매취향이 우선 질을 보고 그다음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는데 그런 방법도 일예라고 생각합니다.

6.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구입건..

현재 용산에서 비디오카메라 시세는 쓸만한 모델이 50만원대, 디지털카메라는 가장 유명한 올림푸스 카메라 C-730UZ 모델(320만화소, 10배 광학Zoom)이 6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합해봐야 120만원 안쪽인데 170만원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정석님은 너무 가격을 높게 부릅니다. -- 이것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우리 아파트를 위해 힘써주시는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일하시는데 있어서 관리소에게 맡길 것은 맡겨야 하겠지만 각종 물건 구매에 대한 시장조사에도 더불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것,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물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구요..

아무튼 저도 앞으로 이정석님이 올바르게 훌륭한 일을 할수 있도록 나름대로 힘써 보겠습니다. 일개 주민에 불과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도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목: 햇볕정책의 고찰과 DJ정부의 성과...

「햇볕정책」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태양에서 발하는 햇빛처럼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잘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 남쪽과 친해지도록 한다는게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소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데는 이보다 나은 발상이 없다. 뽕 한대를 맞아도 다른쪽 불을 대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쥐고 땀가를 묻지 않으니 이보다 확실한 대북정책이 있을까? 이게 바로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먹혀들었던 주요한 이유였다.

물론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합의를 배제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요새 대두되고 있지만 과연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런 일방적 햇볕정책이 추진될수 있었을지 여부에 대해선 필자도 회의적이다. 그만큼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도. 국민들이 신이 아닌이상 또 부처가 아닌이상 햇볕정책을 수용하기엔 무리가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게 솔직한 생각이다. 차기정부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액을 몰래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물론 혈세의 도움을 받는만큼 확실한 명목과 계정에서 출연되어야 하는것도 당연한 거고 말이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남북한 서로가 좋은것을 맞바꾸는 상호주의로 나갈 필요도 있다. 이제 화해의 물꼬를 틀었으니 햇볕정책을 새로운 대북협력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서 옛 햇볕정책의 장점들을 보완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면 새정부의 대북정책도 순항할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은 DJ정부의 성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의약분업으로 의보재정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상당부분을 수습해서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면인 약과 의료서비스의 분리경쟁체제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국민연금과 더불어 인터넷 의료정보체계가 어설픈게 구축되었지만 말이다.(하지만 시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국민의 정부 들어 맨처음 눈에 띄는 항목이 언론자유와 신장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탈권위와 인권·자율원칙에 편승하려는듯 출범 초기부터 언론들은 대통령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소위 발언의 자유를 만끽했다. 그만큼 언론자유가 신장되었다는 뜻이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정화된 모습으로(세무조사 추정금 취소처분에 즈음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 문화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연결이 되는데 출범이후 DJ정부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면모를 갖추는데 국민들과 더불어 꾸준히 노력했다. 행정부의 웹사이트들을 대대적으로 개설, 구축해 나갔으며 그걸 대국민 서비스확대로 이어나가고 인터넷민원서비스로의 전자정부 모습까지 갖춰 투명한 정부, 서비스하는 정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 전자민주주의, 투명한 정부로의 길은 아직도 멀고 그 뜻은 창대하지만 그 초석을 닦았다는 DJ정부의 업적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치를 부여할수 있는 혁명적인 개혁 그 자체였다.

물론 그밖에 IMF경제관리를 잘해왔고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가장 가치가 컸던 것은 인터넷을 통한 투명한 정부로의 이행노력이었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이 가치는 DJ정부가 그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낸 성과이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더욱 계승발전되어 나가겠지만 차기정부는 전자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굳이 여러개 열거하고 싶지 않다. 하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과연 역대 대통령이 그러했느냐 하면 우리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실수가 있을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도 실수를 여러번 했지만 이미 그가 이룬 업적은 이런 것들을 모조리 희석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앞길엔 비록 경제불황과 실업같은, 젊은세대가 헤쳐나가야할 난제들이 놓여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또 자식세대를 위해 마지막 여생을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여유는 잊지말아야 하겠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지극히 무겁고도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외로운 자신과 싸워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정원고1: 국민참여정부 도래와 분권화 시대의 특징과 과제.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얘기는 진일보한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분권(권한의 분산)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앙권력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굼직굼직한 현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권형 체제는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단점이 있어 추진력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반면 중앙권력은 소수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된 나머지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한 정책추진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분산형 권력은 의사결정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피부에 와닿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정책들을 민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결제해야할 많은 사안들이 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그걸 일일이 좋고 나쁜것을 따져서 보완하게끔 지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걸 각 부처나 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국민 검증을 받도록 조치한다면 더욱 내실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가 있다. 현재로선 정책집행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안된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터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은 큰 밑그림을 그린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그런것들이 의약분업이나 대북송금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앞서 말한 둘 사이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서 우리정치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두가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해야할까?) 선결과제가 있다. 하나는 전자민주주의 혹은 전자정부를 통해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이걸 적극 활용해서 각부처 행정에 적극 참여, 감시코자 하는 의식과 노력이다. 즉 중앙권력이나 분권형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스템과 참여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근데 요사이 모습은 분권형 제도의 도입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걸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절게 받는다.

다음 연재에는 우리나라 투명행정시스템(행정공개시스템)의 현실과 개선방향, 국민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얘기할까 한다.

수정원고2: 투명한 행정시스템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현실.

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뇌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대답은 NO다. 그럼 그같은 문제를 어떻게 차단해야만 하는 것인가?

한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금액은 170조가 넘는다. 그 금액은 1년동안 대규모 아파트단지 8500개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물론 그 돈은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SOC지출로 대부분 나가지만, 그밖의 복지나 교육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수준은 무척이나 형편없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그 엄청난 금액이 얼마에 집행되고 어디에 쓰여지고 또 누구에게 지불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 그렇게 예산집행내역이 은폐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펄펄 쓰게 만들거나 입찰비리를 날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불만을 야기시키는 암적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교육용컴퓨터를 수십만대 보급하게 되었는데 대당 70만원이면 구입할 것을 100만원에 구입한다던지 각 학교에서 소비하는 프린터나 복사기, 토너를 고가에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 말이다. 더군다나 어떤 학교는 집중적으로 소모자재를 거래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나 공무원들이 다 쓰지도 않은 토너를 갈아버리는 등(공금횡령)의, 공적 조달에 있어 그 방만한 이용이 도를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공무원들의 교육비에 쓰여져야 할 22조원이란 나랏돈이 그걸 관리하는 무수한 공무원들의 월급과 방만한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란 얘기다. -22조원이면 1년동안 최신 서버급 PC를 1천만대 보급할 수 있는 돈이다.

실제로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나라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중앙정부 하나를 보더라도 '인건비'로 책정된 비용만 20조가 넘는데 그것이 모든 공무원의 급여인지 부터가 불분명하고 기타 자재비, 관사(官舍)운영비 같은 걸 빼고나면 국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걸 낱알이 파악해서 나라살림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행정전산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기종을 선택하거나 월드컵경기장, 도로 및 다리, 관청건물, 공원 등을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얼마에 물품을 납품받고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등등에 대해선 전혀 알수가 없다. 과거에 국방비 예산이 16조원이 소요됐고 월드컵경기장이 여러개 지어졌지만 그 돈의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아는 국민은 해당공무원과 감사원담당자 말고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도 얼마를, 어떤 우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해서 어떤 금융기관으로 투입되었는지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회수불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회사의 부실채권들을 정리해 주었는지 등등 많은 이해가 얽힌 구체적 사실들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단계로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요사이 인터넷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행정부 웹사이트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체계적으로 그때마다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말이다. 관청에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는 행정정보공개신청

이란 제도로도 극히 제한적이라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도의 내용이거나 구체적 자료들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인터넷이란 훌륭한 정보공개도구가 있는데 왜 굳이 관청에 찾아가서까지 찬밥을 먹어야 하는가 말이다.

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피해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번 서울시의 시내버스요금인상이다. 필자가 시내버스인상 소식을 접하고 맨처음 찾은 곳이 서울시 홈페이지였는데 거기서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공지사항에 요금인상요율표만 나와있지 원하는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본 다음에야 보도자료부문에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보도자료가 있다는걸 알았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버스운송원가가 714원이어서 요금은 100원을 올리고 미반영분 40원은 업계 자체의 경영개선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 뿐 인건비, 경유가 등의 비용과 원가산출기준인 월간 승객수송인원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원가산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월간 대당 5000명이 타느냐 7000명이 타느냐(~15분에 3명이 타는걸로 계산)에 따라 업자들의 수익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것을 밝히지 않는 한 원가산출은 아무 의미가 없다. 5000명이 타면 월간 매출이 300만원이 되고 7000명이 타면 420만원이 되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엄연히 틀린데다 요금을 100원 올리게 되면 350만원과 490만원이 되어(~15분에 6명이 타면 700만원과 980만원이 된다) 거기서 인건비와 유류비를 제해야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 월간수송인원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버스요금인상에 있어서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불투명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전자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투명한 행정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선 이 정도의 보도자료가 지곤 어렵었다. 공무상 작성되는 구체적인 문서들이 해당 공무원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전부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것은 행정공개 현실에 대한 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다음 연재에서는 또다른 구체적 예들과 행정공개 시스템 구현방법 및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제목: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2003.02.23

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이미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파괴해온 지가 오래다.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다음 내부자들(대주주나 최고경영자)이 그걸 사들여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편법 증여·양도할수 있는데다 이번처럼 정당한 주식평가없이 서로 확연히 다른 계열사간 주식을 맞교환한 사건은 탈법을 넘어 자신들만의 주식잔치를 벌인 것으로, 이런 것을 보고도 어이없이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는 소액주주들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재벌개혁이 무색할 정도다

주식시장이 이들 내부자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였지만 정부는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거액의 과징금만 부과할 뿐, 좀더 강압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너들도 그걸 심분 활용하는(~그래도 돈버는 일이므로) 웃지 못할 작태가 자행된 나머지 요사이 같은 주식시장 폭락이나 공급과잉 같은 주식인플레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경기침체로 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과잉발행한 이유도 있지만..다 연관이 있는 얘기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것이 본 필자가 전에 말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말로만 재벌개혁, 소유지배구조개선..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혁과 주식시장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대구지하철 참사 보도에 관해..

이번 지하철 참사는 신병비관자의 방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때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지하철 당국자들의 책임이 80~90%라고 할 수 있다. 방화가 일어난 뒤에 우왕좌왕하던 사이에도 (설사 객차 내부가 단전됐다 하더라도) 자체 밧데리를 통한 열차문 개방을 할수 있었고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타지도 않는 주 동력선과 역내설비전원을 모두 차단한 걸로 봐서 지하철 안전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역무원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틀림없다. 광강한 가운데 보이지도 않게 만들고 반대편 열차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승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결과 활활 타는 화장터 가마에 산 채로 사람들을 가둬 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더욱더 실종자가 늘어났는데 유독가스와 함께 현장의 화재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한뒤 빨리 문을 열어 승객들을 대피시키기만 했어도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

올릴 문서1.txt

었는데 건축운영과 연관된 지하철공사의 허술한 인력관리와 어이없는 역무원 교육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만 늘어나게 됐다. 객차 안에서의 화재로 인한 참사는 처음인 걸로 아는데 업무상 과실이 큰 만큼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안전관리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씨랜드 화재, 인천호프집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등 어이없는 대형참사들은 지금까지 목격해온 만큼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화재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영령들이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모른다...

재벌의 불법 주식거래(독점 시세차익)나 편법 지배권 강화는 용납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과 똑같은 주주의 입장이라면 서로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 내부자라고 해서 또 대주주라고 해서 편법의 주식거래가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 그걸 국민들은 걱정하는 것이고 정부도 그걸 이용해 과징금을 받아내고 있다. 당국도 과징금 위주로 재벌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강공책을 펴나가야 한다.

제목: 좋은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

1. 직원 처우에 관한 문제와 직원 자질에 관한 내용.

현재 우리 관리소는 관리실 4명, 전기·기계 합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관리비에 관한 제반 회계업무와 민원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직원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관리소장님과 실장님의 분담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9명에 대한 업무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9명이 세대민원을 담당하는 걸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165세대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건 1세대를 5달 남짓에 한번씩 방문하는 일처리량(~165를 30으로 나누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인이 하루에 한세대 밖에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달에 한번 분량밖에 안된다는 뜻이지요. 그럼 과연 관리소직원이 5달에 한번씩 우리 세대를 방문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집은 지금 입주한지 30개월이 다 되가지만 관리소직원 온 적은 딱 2번이었습니. 그것은 업무량이 15개월에 한번씩 1인이 하루에 한세대씩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량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업무량입니다.

직원 자질에 관한 문제들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내는 관리비 수준으로도 당연히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타단지와 비교를 하신데 그렇게 타단지와 관리비수준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지금 구성된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에 대한 점검부터 먼저 선행되고 난다음에야 급여를 올리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전기·기계 팀을 3명씩 해서 6명으로 줄인다고 합시다. 6명이 1인당 관리해야할 세대수는 247세대가 되는데 그걸 30으로 나누면 8개월 마다 1인이 1세대를 방문하는 일처리량이 됩니다. 8개월 만에 각 세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하루에 한세대의 민원만 처리하면 된다는 일처리량이 되어 버립니다. 그걸 다시 4로 쪼개어도 2개월에 한번씩 하루에 4세대씩 방문하면 전세대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처리량이 되어 버립니다. 이 얼마나 널널하고 편한 업무량입니까?

그래서 전기·기계 인원을 지금보다 3명 줄이고 그걸 각 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반영한다면 지금보다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많이 오르고 업무도 놀자판이 아닌 쾌적한 업무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반론 있으시면 답글 달아 주시구요, 기계전기팀 아저씨들이 많은 시간을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복구작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 관리에 힘써야할 직원들을, 하자로 인해 생긴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노가다에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침수가 됐는데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물빠는 작업에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의 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파트 설비 같으면 6명으로도 충분히 관리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군요.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리소 직원 자질 문제는 현 급여수준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있고 똑똑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타단지와 비교하기 이전에 절대적 업무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단지가 정상이라면 타단지가 비정상인 되는 것이지요.

2. 단지 조경 사업에 관해서..

단지 조경 사업은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우리 단지는 3년도 안된 새아파트니까 관리만 잘하면 기존 조경과 기존 구조물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구요. 오래 거주한다면 단지가 험고 보기가 흉할때 적립한 충당금으로 새롭게 꾸며도 늦지 않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트칠만 새로 해도 아파트가 깨끗해지잖아요. 괜히 서둘러서 충당금을 빨리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몇십년을 계획으로 차근차근 멋진 조경이나 보수작업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비용도 적게들고 아파트가 격도 오르고 1석 3조의 효과를 볼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앞으로 쪽쪽 뻗어 자라도록 거름과 비료를 주면서 가꾸는 것이 현시점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 나무가 자라면 적당히 옮겨 심어서 구도도 잡아나가구요. 지금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더 좋은걸 한들 조경이 웬창해지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럴습니다. 주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018-209-5482(이윤찬) 연락처를 남겨주시던지요..

제목: 동대표 중임제와 감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회장 개인한테만 판공비로 40만원 지급되고 있고 능력있는 동대표가 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에 있어 1년에 한번 정도의 실효성 있는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아파트는 비싼 돈 줘가며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보고도 시원찮았던 데다가 유범열 감사님한테 소정의 감사비(50만원)를 지급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번 정도는 자체 동대표감사나 주민감사전담팀을 구성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네 아파트 회계 정도는 이런 소규모 감사풀(Pool)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약간만 들이면 관리사무소가 집행한 관리내역을 몇주동안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여러 관리내역들을 철저히 작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실증에 필요한 급여명세서나 각종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물품거래영수증, 거래처 전화번호, 업무일지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받고 감사하는 동대표나 주민들도 신이 나고 아파트 관리도 거짓이 없게 되고 동대표님들은 더욱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능력있는 동대표가 몇년이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 실효성있고 저렴한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감사님이나 (감사를 위해) 고생하는 일부 주민에게 일정액의 감사비를 (감사를 시행할 때만)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동대표님들에 대해선 봉사를 위해 출마하셨으니까 회의에 적극 참석하고 좋은 의견을 말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도 1년에 몇차례 없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고박 회의에 참석해서 몇시간이고 회의내용을 경청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추신>

아님 감사 진행할때 동대표님들 전원이 합심해서 역할 분담해 감사비를 나눠가지시던지요. 꼭 과거에 처럼 잇권에 개입해서 부산물을 취하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정당당히 수고비를 받아가십시오!!!

제목: 왜 그렇게 사냐? 어이없는 일화 4가지...

아래의 4가지 얘기는 필자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겪었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세상이 점점더 각박해지고 이기적이며 가식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울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1. 토요일, 친구 녀석이 보자고 해서 그길로 버스를 탔는데 동네 고등학교를 지나는 지점에서 교통이 무지 정체되기 시작했다. 교통상황이 안좋은데다가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것 같아서 중간에서 내리기로 하고 정류장 40M앞 지점에서 앞문으로 달려가 운전기사보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근데 그 기사는 뭐가 못마땅한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불쑥 뒷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미리 내리니까 앞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는데, 뒷문으로 돌아내려가라는 운전사의 못된 심보에 순간 확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내리면서 그 운전사 나한테 무슨 악감정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전엔 컴퓨터 본체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서 그냥 차를 대주기는 싫었는지 한참 앞에 정차해서 사람을 골탕먹이기까지 했으니 열이 안받을래야 안받을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 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못되고도 어이없는 행동들을 목격할 수 있다. 손님들이 뺨을 눌러 내리려고 하면 바로 앞에 정류장을 놔두고 펜스가 설치돼 있는 위험한 도로에 사람들을 그냥 내려놓고 가기도 한다. 비 오는날 우산을 접고 타려고 하면 차도 없는데 바로 앞에 다 세워주지 않고 먼치 앞에다 세워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도 한다. 다 운전기사들의 못된 심보의 발로다. 왜 그렇게 사냐? 다 사회를 좀먹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월급봉투는 두툼해졌으면 바라는 이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2. 그날, 친구랑 셋이서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새벽 늦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한 친구녀석이 곤드레하게 취해 다른 친구와 함께 그 녀석을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다. 둘이서 부축하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오줌이 마렵다며 담벼락으로 가더니 거기에 주차해 있는 다른사람 차에다 쉬를 하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임마 차에다 쉬를 하면 어떡해?" 하니까 "내차도

올릴 문서1.txt

아닌데 뭘, 자는데 주인이 알것 같애? 몰라~" 그래서 내가 다시 "니 차에다 누가 그러면 넌 좋겠나?" 하니깐 "내 차에다 하면 죽지~" 하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사이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집앞에 차를 보더니 그 녀석이 또 뭐가 수틀렸는지 차를 걷어차고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평소 그 녀석 행실을 잘 아는 터에 다시한번 그 녀의 못된 심보를 확인한 계기였지만 어엿한 셀러리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세상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임마, 왜 그렇게 사냐? 순간 대구참사가 어른거렸다..

3. 오늘도 어김없이 관악산 민주동산엘 다녀오는데 1층 입구에 할인점 직원이 식료품을 가득 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난 그 직원이 동네 농협이나 대성슈퍼(동네할인점)에서 온 직원인것 같아 배달해주는 금액을 물어보려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성대요" "얼마면 배달해 줍니까?" 짧게 또 머뭇거리더니 "가격은 상관없이 다 배달해줘요" 하는 것이었다.

난 우리집 현관에 들어오면서 하도 이상해서 아까 한 말을 되뇌어 보았다. '성대? 그런 가게는 이 동네에 없는데.. 또 가격 상관없이 다 배달해줘? 그런 가게도 있나?'

순간, 난 그 점원이 성대라고 한 것은 대성슈퍼를 말한 것이었고 가격에 관한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걸 금방 눈치챌수 있었다.

그 점원이 뭐가 못마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손하게 묻는 말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은 나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왜 그렇게 사냐?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약도 먹지않는 멀쩡한 싸이코들이 많은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란 말인가?!

4.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전엔 당신께서 이런 경험도 했었던단다. 다섯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더러 "너 어느 유치원 다니냐?" 고 했더니 "보면 몰라요?"하며 훌쩍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가방 보고도 모르냐는 뜻인 모양인데.. 아이까지 이렇게 돼 버린 세상.. 내가 과연 이런 사회(사람들)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고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용히 반문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제목: 기부채납 도로 환수 노력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데...

경비원을 놔두고 4명을 별도로 더 고용해 차량을 통제한다는건 지금으로선 좀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펜스나 차단기를 우선 구입해 설치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회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기부채납된 도로를 환수하려고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게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 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자꾸 주민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회장님이 주축이 되어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행동을 하셔야지 구석에서 혼자 활동하신들 누가 인정을 해주겠으며 제대로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전 도로환수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그래서 그 도로에서 마을버스만 일방통행되도록 하는데에도 적극 도울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 모든것은 저와 비슷한 여러 주민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실한 실효를 거두기위한 현실적인 공동 노력이 더 중요하단 생각을 해봅니다.

P.S

7월에 마을버스 인가권만 넘어가는 건지 노선조정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구청에 이양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우선 펜스나 차단기를 강제 설치한 다음 마을버스와 단지내 차량만 출입하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재 307동 초소가 없으니 후문도로 분수대쪽 근처에 초소를 지어서 차량통제와 경비를 겸임하도록 하면 도로환수노력은 저절로 이뤄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과 협의해 보고 안되면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수도 있겠지요.

제목: 버스요금 인상소식에 즈음하여... 2003.03.03

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합당한 체제보장이란 댓가를 지불해야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제네바합의 이후 경수로건설(북한의 핵발전을 위한 국제지원책이라고 알고 있다)이 지지부진했고 반대편에선 남북화해 무드에 불만이던 미국이 북한핵개발이란 카드를 내보임으로써 긴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게도 엄연히 있는데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제 많은 것(핵무기가 아닌 핵개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림)을 얻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서로 이성을 찾고 양보할 때가 되었다.

올릴 문서1.txt

미국이 핵포기(어떠한 종류의 핵이라도)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북한으로하여금 마음놓고 남쪽과 교류할 수 있도록 체제보장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도 본다. 부시가 전에도 '악의축'발언으로 북한을 긴장시켰고 핵발전소도 만들어준것이 아니지 않는가?

2. 버스요금 인상소식에 즈음하여...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2000년 7월에 600원으로 올린이후 2년 7개월만에 다시 16.7% 인상을 하게 되는 요금수준이다. 연 물가상승률을 5%라고 했을 때 3년도 채 안돼 3배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지금까지 못올린 것(못 올린 것도 아니다. 너무 올리고나서 뭐라하니깐 안올린거다) 다 올리고도 남아도는 금액으로 100원의 16.7%가 16.7원인 것을 감안하면 600원의 16.7%인 100원은 그것과 6배가 넘는 인플레이 차크효가가 있게되는 셈이다.

그리고 TV에서 말하는 몇 %의 물가상승률이란 애기도 사실은 물가상승금액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연도 대별 가격이 비례되면서 물가상승추이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년도대비 몇%냐를 따지니까 연도 대비 물가상승금액은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의 가속화다.

차가 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만 직장도 다니고 갖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와 버스업자들은 승객이 줄었다며 100원 인상도 적은 것이라고 엄살을 떤다. 자기네들의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때문에 마을버스에게 승객을 빼앗기고선, 또 거기에 항의해 시민들이 웬만한 거리를 걸어다니게 만든 책임은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 또 100원이라는 초유의 금액을 인상한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이기적인 심보와 다름없다. 시민들은 걸어다니거나 말거나 주머니 사정은 좋거나 말거나 지네들이 버스 안타고다니고 배겨? 하며 요금을 올려받아 자기들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

서민들의 편에 서야할 서울시 담당자들도 업자들의 달콤한 로비에 비해 (자기들도 타고다니는) 버스값은 껌값일테고 서민들의 불멘소리도 두꺼워진 면상에 묻어 버리는 철면피가 된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화가나는 것은 버스요금을 내려서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올려받는 것을 통해 아예 좌석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와 업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필자와 같은 사람은 요금이 인상되면 절대 버스이용을 안하겠지만, 가격을 내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듯 인상을 계획하는걸 보면, 필자와 같은 지독함을 시민들이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들이 간파하고 있는 듯 하다. 월간수송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업주가 남는 이익이 크게 달라지는데, 가격을 올려도 장기적인 수송인원은 별로 변하지 않을거라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정하는 독점가격시장(~시민의 발이란 독점상품에 대한)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다를바가 없겠다. 10분당 3명씩 월간 8640명만 타도 700원 요금 기준으로 버스 한대당 매출이 6,048,000원이다. 경유값, 운전사 2교대 월급 빠지고도 몇 백만원이 남는다. 버스가 한 대만 있는게 아니므로 업주는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간수송인원에 따라 업주가 챙기는 돈은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근데도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안에서 버스회사들의 월간수송인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버스회사들의 수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서울의 무수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3. 호주제 폐지 추진에 관한 보도...

호주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성을 아버지 성에 따르는 제도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을때, 만약 한쪽 부모가 재혼해서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한가지 큰 사회문제가 대두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백년해로 같은 아름다운 결혼문화가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새로운 호주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족문화나 결혼문화가 심각히 훼손되고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본다.

새 호주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성을 새 부모의 성으로 갈아치우도록(~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만드는 제도는 분명 도덕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다.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기존 호주제가 분명 남녀평등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는 못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부모가 이혼해서 친자식이 모계 쪽으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모친과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모계 자식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문란한 가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음과 같이 호주제를 보완했으면 싶다. 즉 호주제 본연의 뜻을 살려 최초로 결혼한 부부의 양쪽 성(姓) 중 한사람의 성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짓되 재혼할 경우에는 혈연관계에 있는 모친이나 부친의 성을 쓰게 하자는 말이다. 재혼시에 새 부모의 성은 따르지 못해도 이렇게 자기 친부모의 성으로는 서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부부관계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기존 제도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현대판 호주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가지, 이렇게 되면 자식을 가진 편부모가 재혼해 또다른 자식을 갖게 되었을때, 이복형제나 이부형제, 또는 이혼해서 갈라진 친형제들간의 성(姓)이 서로 다르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들의 성이 서로

같은 오히려 친형제들의 성이 다르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떤가? 요즈음 같이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은 시대에 현실적이고 평등하며 책임감있는 호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4. 레일위에 놓인 침묵으로 인해 새마을호 대형참사 날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대구참사같은 방화는 아니더라도 또다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는데 기관사의 급제동 때문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서 철제망이 파손된 채로 개방돼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정부와 철도 당국자들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해 안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모든 악의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따뜻한 사회, 복지)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2003.03.11

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불안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명심할 것은 북한은 북한대로 서운하게 대해서는 안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서운하게 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남북화해 물결을 잇기 위해서 그러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오랜 우방의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다른쪽 편을 들다가는 지금까지 닦아온 동북아 새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만큼 당국자들은 신중한 자세로 외교에 임해줬으면 싶은게 솔직한 생각이다.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동북아 정세와 북미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면 싶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갑작스런 남북화해와 교류로 미국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과정에서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한테 좀 서운하게 했을 수도 있고 일부에서 일어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가 자칫 반미로 오해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체제간의 골 때문에 오랜간 우리와 분단되어왔다는 것을 인식시켜 요사이 화해무드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해야 할 것이며 북한에게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돌발적인 행동을 말아줄 것을 당부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북한이란 나라를 South Korea와 같은 한국어를 쓰는 독립적인 North Korea로 친숙하게 봐주길 바라며 북한도 미국이란 나라를 인터넷과 컴퓨터를 보급한(~북한도 윈도우와 리눅스 쓰지 않는가?) 훌륭한 나라로 친숙하게 바라봐줄 것을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같은 '체제'란 굴레 속에서 정치 당사자들이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을때 그 속에 선량한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세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무게는 더한층 무거운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들리는 음악처럼 처음엔 좀 긴장되다가 결국엔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북미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2.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시화 보도에 즈음하여..

유엔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을 예정대로 감행한다는 미국의 태도는 주지하다시피 스스로의 명분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올바른지 못한 행동이다. 세계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스스로의 신분에 자만한 나머지 세계여론을 무시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심각한 국제적 결례다. 이것은 미국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향후 국제적 이해관계를 재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미국 스스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물론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주둔군으로 활동하면서 강대국 이미지에 걸맞게 동북아평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요즈음의 북핵사태도 그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말이다. 그런 명예로운 위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국제경찰이란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계주변국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라크 공격 결정에 대해 세계인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제목: 독자의 한마디

저는 카드 사용을 부추긴 카드사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채업자와 진배 없습니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라도 친구한테 돈빌려주고 못받는다면 독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돈이 자기들한테 많으니까 돈을 빌려줘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네들은 돈을 빌려줘 이자받아 챙기는 것에 재미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한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계좌 잔금 한도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카드 사용입니다. 그러나 한도밖에서 지불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선 대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준하는 이율로 여러분께 돈을 받아낼 것이 틀림 없습니다.

카드사들이 교묘하게 한도를 높여놔 자동으로 대출로 유인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전략해 버렸지만 그 위험성은 성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전 친구한테 몇만원 이자없이 얼마간 돈을 빌려준 적이 몇번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친구한테서 돈을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현금서비스도 받으적 없구요. 하지만 돈은 억척같이 받아내지요.

저도 빌려주면서 썩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샌 친구들과 돈거래는 일절 안하지만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에 관한 것과 빌려주는 기간 등 당사자들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단순히 빌려준다고 했으니 나는 썼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올바른 행동일까요?

물론 지적하신 원금만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사회는 돈에 관한한 냉정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복지정책과 혼동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사회와 복지사회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대상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탕감은 현실적으로도 한낱 오보(잘못된 보도)나 허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워크아웃제도에 관해서도 탕감이 아닌 장기저리상환으로 배려해 주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공적자금이 수습조원이라고 하니 신불자(신용불량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선례를 무기로 정부관계자들에게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공적자금 선례와 같이 다른 우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조성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공적자금이 수습조원 버려진 현실에서 개인신불자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허나 제 개인적 입장에선 희망찬 사회를 위해선 누구든지(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엔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다 피해자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칼럼을 속필한 이유가 카드사들의 책임, 정부의 무대책을 옹호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Daum투표 결과에 나타난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관점에서 쓴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목: 인터넷 세계의 양지와 음지

인터넷의 양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방에서 전세계 모든 단체나 개인과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뜻에 따라서는 원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의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한가운데에 고객들을 더욱 깊숙히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또 축적된 노하우로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비영리 사이트들도(~관광서 홈페이지 포함) 탄생시켰구요.

반면에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게임중독, 포르노중독, 사이버중독 같은 현실세계와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음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잉태하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지금 이시간에도 넷상에서 생성되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가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도 있지만 너무나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삶에 대한 정체성 상실을 가져오면서 그로인해 목적의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인터넷사용을 위한 교육과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세계는 '공간'이라는 제약위에 양지와 음지가 확연히 구별되지만 사이버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모니터 화면에 모호하게 펼쳐지는게 가장 큰 특징이지요. 그만큼 큰 매력과 동시에 여러가지 유혹(?)들에 대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인터넷세계를 얼마나 절제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보화시대의 미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사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최대 관건은 현실세계를 사이버세계와 얼마만큼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입니다. 현재 인터넷의 양지에서 수많은 건설적인 의견과 활동들이 의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네티즌들 스스로가 내적 성찰을 통해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과 따로 노는 세계는 한낱 허상이며 무의미한 가치입니다. 사이버상의 활동들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저는, 장차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게될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있어,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할 비전과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_ _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는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를 줄 수도, 공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다시한번 명심합시다.

제목:원칙적인 걸 왜 무지하다고 말합니까?

하늘님의 글 두개 잘 읽었는데요, 왜 원칙적인 주장을 무지하다고 말합니까? 현재의 아이디 관리방식에서도, 심지어는 과거에 종이에 신상정보를 기록하던 시대에도 상업적인 신상정보유출은 공공연히 있어왔습니다. 또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것이 불가능했던데다 방지노력도 미미했구요. 물론 지금의 컴퓨터네트워크 기술의 "Copy"라는 것이 신상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정보기술의 (보안취약성이라는) 특수성입니다. 과거엔 중요한 문서를 금고에 넣어놓고 문지기를 시켜 지키면 되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인터넷에 물려있는 상황이 되어버려 보안취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금고와 문지기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무서워 컴퓨터와 인터넷의 효용성을 부정할수만은 없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걱정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유출을 최대한 막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같은 명분을 편승해 거짓정보의 유통도 덩달아 증가했다는데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자기아닌 아이디가 버젓이 존재하면서 인터넷 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목적을 위해 서라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게서 주장하신 지금의 아이디 방식이나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도대나 보안상의 취약점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명분으로 욕설과 낭설이 난무하고 그 틈을 이용한 위장가입자가 발생하여 여론조작이나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이버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백태가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떳떳이 신분을 밝히고 사이버상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쓴 글에서 주장하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특정계층만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실명제 보완책이 왜 무지한 생각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아이디센터로부터 발급한 아이디만을 사용해서 그것만 노출시켜도 모든것이 해결되는데 무엇이 신상정보노출이고 인권침해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Daum이 중앙아이디센터 역할을 한다고 치면 게시자의 아이디만을 노출시켜 비상시에 그걸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혹 자신은 그걸 신상정보노출이고 인권침해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떳떳하지 못함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좋지만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글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시고 설득력없는 주장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우리가 이런 민원을 신청했다급쇼? 헐~

난 전세살고 있고 또 전세사는 사람이 주위에 널렸는데
이런 돈드는 민원을 신청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은 민원을 가장한 사기꾼?
아님 관리비를 올려주기 위해 고용된 전문 바람잡이던지.....
컬러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
배란다 유리창소는 듣기론 상정조차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아파트에 인정있는 사람이 많나
노인정지원을 하라는 민원이 다 있어?
내가 듣기론 노인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된다고 하던데...

난방비 하나만도 무지 들어갔다지 아마?
난 직원급여가 올라간다는 얘길 듣고
이제 진짜 삼성산의 추운 겨울이 오고 있구나 하고 실감하고있지~
당신이 말하는 봄은 우리 전세입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
누군가가 얘기한 올바른 관리비 사용을 통한
쾌적한 단지조성에 관심이 있을 뿐이오.
그 사람이 말했듯이 이것은 전세입자들 뿐 아니라
소유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당신의 언행은 의심이 가는바가 많으오.
그러니 하는거없이 홈페이지에서 떠들어대지 말고
정체를 밝히시오.

제목: 공병대를 파견하는 소득을 생각해봐야할 때

이번에 우리나라가 공병대를 파견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병행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공병대는 공병대대로 미국을 위해 파견하고 북핵문제 처리는 아무소득없이 미국한테 맡겨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

막후협상이 있어줘야 우리도 파병한 보람이 있는것 아닌가? 미국이 나중에 가서 또 땀소리를 하면 어쩔건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TV에서 미국 국방보좌관이 보인 북한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 그것의 전부인양 보도되는 현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북미간의 골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국을 위해 우리의 형제들이 500명이 넘게 전장에 가게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결과가 있어 주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는 또한번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제목: 일정한 시간에 관내에서 기자들 취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정한 시간에 관내에 들어와서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브리핑이나 기자회견만으론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 물론 특정한 시간의 관내취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논의되었던 간접취재의 실명제(기사를 제보한 사람과 취재한 사람의 실명을 밝히는 것)는 관내취재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갖춘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노력을 위해서라도 관내취재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목: 국가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문제가 있는 환자를 스스로 고쳐보라고 놔두는 것과 진배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치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스스로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면 제3의권력(?)이 그걸 해내야 합니다.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보좌진들은 연신 자기네들이 10배수 선발로 엄정하게 인사를 가려낸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소수의 보좌진들이 다수의 인사를 선발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의심쩍은 부분이 얼마든지 뿜출할 수가 있지요. 그걸 전부 부정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

제목: 교통범칙금 제도 문제에 대하여...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출석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기준을 증거가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과도한 위반인가 경미한 위반인가로 구분해서 벌점과 과태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석한 사람은 범칙금만 내고 버티는 사람은 벌점없이 과태료만 낸다니 말이 됩니까?

물론 단속도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벌점이든 과태료든 부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위반내용과 신상을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과 과태료는 적당한 비율로 정하되 악성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금추심제를 도입해 추심원이 세금과 같이 찾아가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도 그렇듯이 말도 안되는 부과항목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내라고 다그치는 추태도 사라져야 할 부분이지요. 확실한 명목만을 구비해 성실히 봉사하는 국가상을 보여주면 악성체납자가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라가 국민을 봉으로 알고 대민서비스가 형편없기 때문에 세금도 그렇고 악성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국민참여마당> 매우 유익한 걸 만드셨네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이디어 뿐 아니라 쓴소리들도 국정에 참고했으면 싶네요. ^^

제목: 국민연금의 남은 재정을 복지에 활용해야...(동감)

국민연금은 아무리 따져봐도 남은 장사다. 유족연금을 생각해 봤을때도 그렇고 인간생명의 불확실성만 놓고 따져봤을때도 그렇다. 즉 장기간 엄청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거대기금이다. 그 얘기는 바꿔말해 40년동안 가입자들로부터 연금을 수납하면 급여를 주고도 엄청난 재정이 남아돈다는 얘기와 똑같다.

근데 당국은 본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정확보에만 열을 올리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물론 수혜자 원칙으로 연금을 충실히 낸 가입자한테는 나중에 충분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40년동안 쌓인 기금에서 급여를 소화해 내고 남은 재정을 복지에 활용한다는 전략은 복지국가에 있어 기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글에 있어 복지차원의 기금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기존 급여기능은 충실히 유지한채 말이다.

제목: 칼럼 구독을 원하는 독자

제 부족한 칼럼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식이 짧아 문장이 현란하지는 못하오나 항상 사회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더욱 힘이 나는것 같습니다.

아마도님께서 네티즌포럼의 '희망의빛™'이란 필명으로 올린 글을 보시고 제게 메일을 주신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알지만 글목록에 가시면 다른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나시면 아울러 살펴보시구요, 제가 과거부터 써왔던 개인적인 칼럼은 Daum칼럼에 정치/법률 코너에 있습니다. 거긴 신변잡기가 어우러진 주변얘기들이 정말 소탈하게 적혀있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너무 솔직하게 칼럼을 써서 거부감이 드실 정도의 그런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끼는 것은 Daum칼럼이구요, 네티즌포럼은 계약적인 칼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써볼려고 노력하지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말이지요. ^^

Daum칼럼과 네티즌포럼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나름대로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Daum칼럼에선 실명으로 쓰고 네티즌포럼에선 필명으로 쓰는 것도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거구요, (Daum칼럼의) 글을 읽다보면 저의 주변과 님이 계시는 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바램들을 케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궁, 말이 길어졌는데요, Daum칼럼의 정치/법률 코너에 아래 서명에 붙은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칼럼명에 제이름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나시면 그곳의 과거에 쓴 글 중에 관심있는 제목들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지 심각하기도 하고...^^

그럼, 아침바다님 오늘도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빠이요~

제목: 건강보험 재정통합...

재정통합을 통해 보험재정을 완충시키고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가뜰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공단이 여러개 흩어져 있으면 더욱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중요한건 통합 이전에 '투명한 보험재정운용'이라는 선결과제를 망각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제목: 인터뷰를 읽고...

1. 건강보험 통합에 4천억원이나 들어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건강보험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복지부의 통합계획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기 위한 도구용임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돈을 들일바엔 차라리 통합대신에 기존 두개의 전산망을 그대로 쓰면서 회계상에서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했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통합에 대한 이슈는 왜 그렇게 퍼뜨리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뭐 예산낭비를 자랑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2.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금 신뢰받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대체율 및 수급나이, 요율 등을 여론수렴없이(~공청회가 아니라 인터넷 상의 국민 투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논의하고 처음에 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울땐 융통성을 발휘해 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할수 있을텐데 정부가 남부요율만 올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은 강하게 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아무리 노후보장이지만 왜 불급생활자를 허탈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연금은 지금 정도로도 충분히 노후생활 영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릴 문서1.txt

3. 의약분업은 완전히 김대중 정부의 사기행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대중씨가 얼마나 약사들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약분업은 결론적으로 의사들한테 국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약사들한테까지의 비용이 더해져 이전보다 의료비용이 증가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훨씬 많이 오르구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약사들, 의사들, 복지부 모두가 국민들 생계를 등쳐먹었다는 애기와 다름없습니다. (아픈 국민들한테 돈 더 못 뜯어가서 안달이라고 볼 수 있죠 -속된 표현은 이해바랍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네요)

지금 감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가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는 3천원이면 치료받을걸 4천원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저 같으면 감기같은것 가지곤 병원엘 가지 않지만 지병이 있어 1차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는 또 이상하게 원내처방을 해줍니다. 의약분업이 이렇게 개념이 없는 가운데 불편한 사람은 매우 불편해지고 저와 같은 고정고객은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약을 타 먹으니 전체적을 봤을 때 안좋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상황이 이러니 복지부에선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복지부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4.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램을 적어봅니다. 저도 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복지부에서 앞서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들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이제는 말 그대로 '복지'를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은 여러가지입니다. 정신은 건강하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 저처럼 신체는 건강하나 사고로 약을 먹으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등 갖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명청하다거나 일을 전혀 못하는 상태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있되 왕성한 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적인 업무에 적응을 못하면서 구직포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시어 복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책을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여러번 일상적 직장에도 도전한뒤 실패한 상태라서 집안에서 늘 최저생활비(?-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것 맘껏 사고 친구들한테 넉넉하게 한턱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의 연속을 겪으며 취직하면 일상적 리듬과 업무에 무뎠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에 대한 보다 새롭고 정교한 실업대책 및 정책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놓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바라봐야하고 각계로부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해 실생활에 직접 다가서는 정책(찾아가는 복지)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말로만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저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저의 노력이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어느 장애인총각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3.05.24

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효과를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다.

또 파업당사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고비용 구조를 꼭 파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자기가 떠난다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서 왜 다른 업종을 찾지 왜 꼭 파업을 통해서 여러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파업은 꼭 수출차질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파업당시 건교부장관의 초기대응 발언도 일리가 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라 수출업체와 파업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왜 언론과 대통령은 불법파업이네 수출차질이네 말이 많았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총련사태, 전교조NEIS대립, 공무원노조 움직임에 대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 좀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싶은게 솔직한 생각이다. 그들 집단도 사회의 구성원들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하나의 이기적인 소집단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집단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면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이 정규직을 쓸건지 비정규직을 쓸건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정규직을 쓸 수도 있고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비용을 들여 정규직을 쓰는 것이 효과가 좋은가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은가 하는 문제만이 중요할 뿐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주의 일시적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제목: 이공계 아마추어 학술논문 및 작품대회를 마련해 줘시다.

과학은 머니머니해도 호기심 충족과 혼신의 힘을 쏟은 자신의 논문이나 작품을 다른사람한테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을 완성해 가거나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고 공식적으로 마련된 대회에 출품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상금도 받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이공계 출신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이구요.

얼마전에 일본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시간을 내어 화학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 노벨화학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상이었지만 그는 해내었습니다. 하물며 국내 규모의 「이공계 학술및 작품 출품대회」를 많이 갖는다고해서 손해볼 건 별로 없습니다.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정도로 노벨상 상금 규모 정도의 작품대회를 갖는다면 세계적 무대의 노벨상 수상이나 이공계 활성화 정책에도 틀림없이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논문이나 작품이라고 하면 완성도가 높은 과학논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물리학, 화학, 유전공학, 지구과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 의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공학, 네트워크장비, 로봇공학, 환경공학 등 유무형의 제조작품까지 포함시켜 이론 뿐 아니라 적용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준다면 틀림없이 유용한 행사로 정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금이 클수록 권위있는 행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구요.

현재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 같은 곳에선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선 두뇌한국 21 사업으로 현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상태구요. 이런 것들은 대학원이나 기업연구소 위주로 보상이 이뤄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국민 아마추어 과학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중 일부를 전용해 범국가 차원의 「아마추어 이공계 학술논문 및 작품대회」에 사용해 투입한다면 꿈나무들이나 아마추어 과학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적에 수학경시대회에 나가서 중이상장 받기 위해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단지 명예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공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작품대회를 준비해 상금까지 주어진다면 누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호기심도 충족하고 명예와 상금도 받고 일석삼조 아닌가요?

단지 여기서 유념할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작품과 논문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작품을 출품하지 않은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할 듯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인데 평점을 매기는 방법을 쓰던지 국제대회에 일단 출품하고 평가를 하던지 해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모병제와 관한 토론...

젊은이들을 2년동안 바보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거의 공짜로 노가다를 부려먹는 현 징병제도 정말 문제 많죠.

정말 Daum이 말하는 혈기찬 젊은이들의 기회비용의 상실(군대를 안감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을 잃음)은 정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기구입은 무기구입대로 실속을 잃고(비싼 무기를 구입하므로) 병사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비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국방비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평가와 감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징병제도의 문제점을 날날이 밝혀서 점차적으로 직업군인들 위주로 군사수요를 충당시키고 군 내부의 취약한 하부계층(현역군인들)을 실속있는 군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시에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하여 정말로 속이 꽉찬 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잘 알면서도 정부에서 만약 사정의 칼을 들지 못한다면 국방부의 장성들과 직업군인들이 국토방위를 발미로 정부와 함세하여 자신들의 군기특권을 지키기 위해 젊은 피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남북화해추진과 더불어 정부당국자들이 새로운 군풍토와 군사전략을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소재를 Daum에서 다루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하다.

제목: 독자의 한마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군대를 철수해야한다고 언급한 것부터 얼마나 큰 진전입니까? 미국이 이번 평화안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미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먼저 테러조직을 소탕하고 이스라엘 군이 그 지역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점령지로부터 군사를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온 수많은 피의 보복들이 서로간의 씻을 수 없는 반목의 골을 파 놓았다는 것도 중동평화가 완성되기 힘든 주요한 이유구요.

이런 상황에선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쌍방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한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한발 물러서서 일시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이스라엘군은 그 지역을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지요. 원수같은 당사자들이 서로 같이 있으면 싸움만 나니까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전술한 관점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들 두나라 사이엔 이미 씻을 수 없는 증오의 씨앗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살테러와 군사진압이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 뉴스 제보입니다. (난곡로)

안녕하세요. MBC뉴스제보 담당자님, 전 신림10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동네인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옆에는 아시겠지만 난곡7동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곡 산동네가 허물어지고 아파트촌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동네와 난곡동네 사이에 있는 산을 허물고 그 사이에 난곡로를 개설하려는 서울시, 관악구청의 계획이 주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호암로에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고 난곡로 개설이 환경피해와 저촉되면서 기존 호암로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연, 분진 등 저희 삼성산아파트에 근접한 도로 개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SBS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만 응답이 없어 이렇게 MBC에 취재를 다시 요청하니 메일 받는대로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한 서울시와 구청의 도로개설이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추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참도 못자고 당국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좋은 취재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한 기사는 이미 관악저널에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환경단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나온적이 있습니다. 취재할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여러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여러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꼭 MBC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목: 정작 고지해야할 건 안하고...

회장님, 성의없게 왜 게시판에 붙였던 내용을 여기에 옮겨 놓습니까? 방송에다 게시판까지 개인홍보도 구인양 마음대로 이용하시더니 여기에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게시판 내용 재탕입니까? 게시판 제목에 대해서 답변하셔야할 말이 많을것 같은데 어떻게 된게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십니까?

6월27일 회의안건만 해도 제대로 공지 안하시더니만 중요한 업체선정건(청소, 경비, 화재보험)은 나중에 조용히 밑실에서 선정하셨다면서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언제 이들 업체를 선정하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었고 27일날 일때문에 뒤늦게 회의장에 참석했지만 이정석 회장님이 회의 끝났다며 업체선정에 관한 사전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업체가 입찰했는지 등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그 이후에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관리" 하며 취임당시 생색을 내시더니만 그 포부는 다 어디로 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301동과 다른동 화재안전설비 고장난것 뭐 화재보험회사에서 돈 타다가 고친다고 하더니만 엉망이라면서요. 어떻게 화재보험료 내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지 대충 사정은 알지만 주민들 안전과 시설관리에 좀 신경좀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2명 동대표 중에 3명 이상이 결원(301동,302동,305동)이라고 들었는데 잔임기간이 90일 이상 이 남았으면 한달이내에 재선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이건 분명 관리규약위반입니다. 관리규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줄 아시죠? 힘든 과정이지만 정족수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니다.

또 하자보수에 관해 말씀드릴게 있는데 회장님이 입으로만 우리아파트 하자보수에 신경쓸게 많다고 하시고선 정작 어떻게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공식석상에서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 다. 곳곳에 땀질식으로 갈라진데 가려놓은거 말고 보도블럭 덜경거리는 문제는 여전하고 사각정벤치의 등나무도 어린것으로 심어놓았대요? 또 그밖에 다른 동에는 곳곳에 크랙, 누수 등 치명적인 하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마지막으로 노인정보조비 선지급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분 지원비를 노인 정에 미리 지원을 하는지 명쾌한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헛갈리게 할 수 있고 선지급이란 명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매달 지원하면 지원했지 선지급이라... 좀 이해가 안가네요.

<추신>

관리사무소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308동 지하통로 환기구 창문이 어떤 둔기로 심하게 깨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두꺼운 유리가 깨지도록 관리소에선 방치했는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밤에 안보이는 곳이라고 하지만 입주주민들이 깰올리는 없고 다음부터 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기물파손도 제대로 관리 못할 거라면 경비나 직원들도 있을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환풍구 밑으로 휴지가 항상 쌓여 있으니 남은 유리를 걷어내고 청소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또한가지 입찰정보지에 업체선정시 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도 입찰정보를 올려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입찰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요새는 정부에서도 전자조달이 활성화되어 있어 인터넷 입찰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에 있는 업체선정에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회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거라 생각되며 괜히 입찰정보지 구석에 공고를 내어 주민들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오픈된 입찰공고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두고두고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정당하고 옳은 길을 가는데 있어 주저한다면 분명 몇몇가지 못한 것이 있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이상 제시한 문제들을 주저없이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는 국민연금 정책에 관한 소식...

정말 정부의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에 정말 치가 떨린다.

전 뭐 직장 안다니지만 직장 다니는 근로자 여러분들 당국에서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에서 국민들 뒤통수를 치는데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찾아가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약관을 적용시키는 당국자들을 문책해서 명확한 약관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참 이건 순전히 공적연금의 횡포입니다. 재정안정화라는 명분 때문에 연금가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얼마전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액 삭감에 대한 문제가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정책인지 정부는 설득력있는 설명을 가입자들에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첨에는 국민연금 시작할때 소득대체율 70%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꼬시고선 이제와서 수급액(받는 금액)을 줄이고 2010년부터 납부액을 올린다고? 참 해도 너무하네 진짜... 참, 나라면 어떤 인간들이 그런 정책을 펴는지 복지부에 찾아가서 나짱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권명숙님, 난국로문제는 잘 되거나요?

안녕하세요. 권명숙님, 지난번에 "시설물관리비"내역에 관해 오해가 있었던 점 기억하시죠? 지난달 관리비내역서에 "난국로 시재 준비금"이란 명목으로 이정석회장님이 500만원을 내역서 장부에 기해해 놓고 이번 관리비 내역서에 400만원을 다시 재입금(환급)시켜 놓으신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정석 회장은 그 차액 100만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물어보려고 해도 일절 전화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인정 보조비도 선지급으로 6개월치를 지난번에 지급하고 나서 이번달에도 또 노인정 보조비를 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뭐가 앞뒤가 맞아야 얘기가 되는데 회장은 일절 언급도 없이 일요일인 오늘도 묵묵부답입니다. -핸드폰이나 메시지

또 왜 이같은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과 비대위간 분열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가 아닐까 하고 회장님께 댓글을 달은 적이 있는데 회장 이정석씨는 일절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만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그분은 기본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고 난 뒤 따로 몇번 번적이 있지만 권명숙씨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정석 회장과 요사이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올릴 문서1.txt

어쨌든 어떤 음모가 있었던지 간에 다소간 오해가 있었던것은 잊어 버리시고 권명숙님은 난곡로 문제에 대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고 그 결실은 온 주민들이 다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족할 만한 처분이 나오지 못해 좀 아쉽지만 더 노력하면 결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하는 애긴데 지난번 부탁하신 것은 꼭 결정적일 때 오류가 뜨지 됩니까? 저도 그런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 그럼 이만...

<추신>

전 비대위에 찬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낸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004님이 찬조금 걷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던데 돈을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성의를 보여주시는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재님께 말한 것이구요 기분이 나빴다면 이해해 주시구요, 제 생각은 돈도 돈이지만 주민이 화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례로 5월 난곡로모임 초기당시 비대위 요구로 이정석 회장이 지출한 주민식사비만 130만원(저지모임 경비 명목)이 훨 넘었는데 우리가 난곡로 막기위해 화합하는 거지 먹기위해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윤중현님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따금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휴게실"에 올라오는 쓰레기 메일들을 지우는데요, 이거 매번 지우기가 정말 불편하네요. 제가 거의 오랜 시간을 들여 게시물들을 다 지워왔는데, 이거 어떻게 쓰기금지 안될까요. 정말 제가 손해보는 시간도 꽤 큰데 추억의 홈페이지로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데까지 신경쓴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제가 매번 지우는 수고를 좀 해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바쁘실거 같은데 언제 철호형님하고 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영 오질 않네요. ^^;

그럼 내일도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제목: 직장엘 다니면 좌절감만 맛보게 된다.

이사람은 장애인의 현실을 잘 모르는군. 일을 하다보면 먹는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 복잡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상상해보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신경전달물질이 장애를 일으켜 생각하는것 자체가 괴로워진다. 그때 그사람이 자기는 괴로우니 쉬겠다고 과연 상사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일을 할수가 없는거다.

이놈의 병은 꼭 복잡한 일을 오래 하거나 뇌를 혹사시키면 꼭 저녁에 찾아온다. 또 병을 야기시킨 자신감파괴가 항상 결정적일때 고개를 든다. 한참 일을 잘 해내다가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때 그놈이 찾아온다. 그럴땐 돈이고 보람이고 보이는게 없다. 단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고픈 현실도피가 물밀듯이 찾아오고 결국 그게 계속 일을 할수 없게 만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다.

제목: 사법부 인사권과 감찰권

법무부가 감찰, 인사권 모두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과 견제를 위해 감찰권은 법무부가 인사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검찰의 인사권은 강력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발휘되도록 해야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다양한 인사위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목: 정치자금과 정치행정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이윤찬 님 생각 / 2003.08.31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토록 법과 시스템을 완비하고 정치자금이 나 나라예산을 공개운용토록 해야한다. 이렇게 안하니까 나라행정(잇권관리)과 뒷돈이 자꾸 유착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권한과 돈이 은폐되어 있으면 이런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 물샐틈 없는 제도완비가 필요하다. 현재기술로 가능하다.

제목: 분명한건 일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건 아니라는것 이윤찬 님 생각 / 2003.08.31

이 뉴스를 보니 한국의 근로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주들이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할 통계라는 사실.. 개개인들의 능력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많이 일하는 것보다는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성과만큼 보상받을수 있게 하나 그걸 연구해야 하는데 이걸 상사가 아랫것들 쪼기에 바쁘니..이래가지고서야..

제목: 평준화로 가되 특성화반을 운영해야 한다. 이윤찬 님 생각 / 2003.09.12

미국과 같이 개인수준별 특성화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은 우리사회모습 만큼이나

다양한 법... 거기에 맞는 수준별 적성별 특성화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당국이 특목고 같은 영재교육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수준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많은 비영재 학생들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분명 면하기 어렵다.

제목: 헬기 3대 도입에 1270억이라 좀 심하단 생각이... 이윤찬 님 생각 / 2003.09.18
아무리 세금으로 구입하고 대통령이 이용하는 헬기라고 하지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를 비롯한 청와대는 어떻게 그런 구입비용이 산출되었는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기엔 헬기의 국제시장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싸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 헬기구입'이란 명분으로 공금을 몰쓰듯 하는 당국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제목: 동맹국을 고려 파병은 하되 실리는 찾아야 한다. 이윤찬 님 생각 / 2003.09.18
지난번 공병대 파병때도 파병만 했지 미국으로부터 얻은건 하나도 없었다. 그 이후로 북핵사태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유도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제조건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 멍청이 외교의 전형이었다. 이번에도 그럴꺼라면 차라리 파병을 안하는게 낫다. 외교란 모름지기 서로간에 얻는게 있어야 외교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외교는 머슴외교나 다름없다. 제발 이제 정신좀 차리지.

제목: 복지부 약가 관리 변경에 대해...
그리고 또하나 병원들의 약가관리를 당국이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의약품이 병원에서 동시처방되고 있는데 약가가 병원이나 약국마다 천차만별이다란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보면 보험급여 이전의 전체약가가 터무니없이 비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평균약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건지 아직도 약가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최저약가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라고 당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약가관리에 체계가 없으니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바가지 진료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적자재정이라고 보험료 올리려고 애쓰기에 앞서 병원서비스 가격질서나 제대로 잡아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쪽이 아픈 사람을 발미로 멋대로 폭리를 취한다면 정말 세상은 사람들에게 가장 살기 싫은 곳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목: 금리를 너무 낮추면 안되고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금리는 너무 낮게 맞추지 말되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강하게 매겨야 한다. 그래야 그게 매물로 급속하게 출현되고 양도세를 줄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높게 매김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다. 현재 1가구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엔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양도세 경감과 함께 급속하게 출현된 매물이 취득세로 인해 감소된 수요와 맞물려 가격이 안정된다.

제목: 부동산 가격 어떻게 잡을까?

요사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3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버르고 있다. 필자가 근래에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 관한 여러가지 기사를 접하고 간간이 올린 글들을 정리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가격 거품은 언제나 꺼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이번호에 실으려고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정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거품 제거에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거주자인데다가 집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 기여도가 낮은 편인데다 높은 보유세를 낸다는 사실에 늘 불만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거품의 주범은 바로 다름아닌 1가구 다주택자들... 그들은 집을 보통 세네채에서 예닐곱채씩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매물들을 싹쓸이 확보해 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적으로도 상당한 수효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부동산들을 확보한 계층이면서도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확보한 매물로 높은 호가를 부르며 부동산투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들의 싹쓸이 매집때문에 신규매물을 찾을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며 오르는 가격을 즐기며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1주택자들보다 이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바람을 확실히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되 양도세는 낮추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높게 매겨서 이들이 가진 물량이 시장에 대거 출현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와같이 보유세 처방과 함께 양도세를 내리고 취득세, 등록세를 올리면 공급은 늘어나는 대신 수요는 팍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몇년을 처방하면 몇년내에 강남의 아파트나 주택가격의 거품은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거품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시중의 엄청난 부동산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급격한 급매물출현을 동반하지 않으면 매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가격하락을 유도시키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되는 2019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거품이 급속히 꺼질거라는게 필자의 예측이다. 그때가 되면 1가구 다주택이나 1가구 1주택을 소유

한 2세대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저렴한 대지나 주택으로 이사감으로써 자연적으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모름지기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매도가 일어나는 법. 그때는 급격한 가격하락이 있을 것이라는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단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은 충격이 덜할 것이다.

제목: 엘빈 토플러가 좀 착각을 한듯... ^^ 이윤찬 님 생각 / 2003.10.15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전망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선 통일이 방해가 되겠지만(예: 남한의 부동산값 하락)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선 오히려 큰 이익이다.(예: 북한의 값싼 부동산을 살 수 있음) 안 그런가? ^^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북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제목: 공적자금도 펄펄 쓰고 못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죠. 이윤찬 님 생각 / 2003.10.16

공적자금도 수십조원을 못받아서 영영 기업수혈자금으로 들어가버리는 현실에 개인신용불량자 빚 좀 탕 감해줬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공자금으로 부실회사채 매입해주면 그돈 다 근로자월급,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여질거 아닙니까? 좀 억울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돈벌어 쓰는 서민들만 열심히 세금내고 저축한다니까요.

제목: 수능 등급제 폐지...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게도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안이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 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교과외적인 다양한 전형을 통한 대입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보화 전형을 새롭게 도입해 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네트워크의 세계 하나만 하더라도 그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데 뒤떨어진 교육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엔 배워야 할게 너무 많다. 단적인 예를 들어 포토샵이란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가 배울수 있는 것과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안 그런가?

제목: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더이상 고칠 필요 없습니다. 더이상 바꾸지 마십시오.

1.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 받나

관악구 신림동 나이 34세 회사원 이성찬씨는 현재 월소득 200만원 정도인데 현재 5년 2개월째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그가 앞으로 60세까지 26년을 더 납부한후 만65세부터(66세부터) 82세까지 16년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그는

제목: '국민연금이 새로워집니다' 홍보물이 뭔가 이상해요

"대한민국 도시가구 평균인, 국민연금 얼마내고 얼마받나"에서 나이 42세 회사원 월소득 200만원 정도로 예시되어 나온 신의순씨의 연금 납부총액과 수급액 총액이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토론을 시작해 봅니다.

우선 납부액을 살펴보면...

①월소득이 200만원으로 9년 7개월째 납입해 왔으면 200만원에다 9% 요율을 곱하고 거기다 9.7을 곱한 다음 소득하락분 6%를 9.7승하면 200만 X 0.09 X 9.7 X (1-0.06)^9.7 해서 958,041원입니다.

②월소득이 200만원으로 앞으로 18년을 더 납입하면 200만원에다 2003년 시점부터 18년간의 평균 요율인 10.61%를 곱하고 거기다 18을 곱한다음 소득증가분 6%를 18승하면 200만 X 0.1061 X 18 X (1+0.06)^18 해서 10,902,433원입니다.

①과 ②를 합하면 신의순씨의 총납부액이 11,860,474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90,575,930원이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것 아닌가요? 그럼 그옆에 나온 연금급여 총액도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공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금급여 총액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구요. 개정된 연금이 앞으로 시행될 경우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생각했을때 연금이 남아돌 수 있다는 논리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했는데 토론 시간이 촉박해서 정말 저도 유감이네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독신자와 부부납부자들의 통계를 고려해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생각해 봐야죠)

제목: 개인의 부동산을 공개념으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은... 이윤찬 님 생각 / 2003.10.15
엄연한 개인 재산권 침해이다. 부동산정책은 엄격히 시장경제 안에서 적절하게 규제되어야만 한다. 누가 자신이 돈들여 산 부동산을 투기지역으로 맘대로 묶어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투기지역 지정을 남발하는 것도 공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엄연한 개인 재산권 침해다. 정부의 역할은 오직 시장의 왜곡(불균형)을 막는 것이다.

제목: 새로운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님의 의견을 듣고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맹방이라는 이유로 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은근히 종용받아 왔고 미군이 주둔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히 거절할 건 거절하며 어느정도 국익을 따져가며 동북아 안보를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로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주국방과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며 주변 여러나라들과 이해의 틀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1세기는 20세기의 침략과 반목, 이념의 대립에서 화해와 공존,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선 이전의 고비용과 의존적인 국방의 틀은 더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으며 이젠 저비용, 국제적인 감군노력을 병행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탈이념과 정보화로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잡고 변화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선님께서 지적하신 의존적인 안보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안보비용을 해소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님 의견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살을 덧붙여 봤습니다.

제목: 과징금 수입에 혈안이 된 당국... 희망의빛™ 님 생각 / 2003.10.28

인터넷 회사들이 출혈경쟁을 감수하며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런 경제적 의도는 무시하고 당국이 과징금 수입에만 눈이 멀어 어렵게 지탱하는 인터넷 회사들로부터 과징금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강국을 위해, 버스업체처럼 유류비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과징금을 받아낸다? 좀 문제있다.

제목: 통신회사들의 통신망 독점 횡포... 희망의빛™ 님 생각 / 2003.10.28

PP(프로그램 제공자)나 IP(정보 제공자)는 늘 찬밥신세, 정보이용료보다 접속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는 기간무선통신망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독점 통신망 공급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에만 눈이멀어 정보 제공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걸 보여준다. 이번 기사는 늘 소문만으로 듣던 통신회사들의 횡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목: 공정한 검사들로 구성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 한다. 희망의빛™ 님 생각 / 2003.10.27

여야 공히 검찰의 강력한 계좌추적권과 압수수색을 통하여 대선자금과 4년전 총선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별도로 선임한 특검 검사들을 통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내야 한다. 대충 수사하고 마무리하는 특검은 필요없다. 강력한 권한을 특검에게 준 다음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제목: 한나라당은 무덤을 자초하고 있다. 이윤찬 님 생각 / 2003.10.28

얕팍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신료로 방송계를 위협하는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잔꾀에 자기가 묻힐지도 모르는 무덤을 스스로 파헤치고 있다. 제1당이던 제1당답게 매너있게 행동해야지 다수당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횡포에 가까운 수작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질정치다.

제목: 동감합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을 싸잡아 관심거리로 만들면 곤란하다

Daum이 이번 기획을 연재하면서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느껴 글을 제작한게 아니라 어른의 흥미거리의 소재로 삼기 위해 이번 연재를 다루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주위를 봐도 너무나 순수한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타락한 어른들이 보는 초등학생들의 이미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 이번 연재는 다만 조카, 아들딸 같은 여러분들을 어른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작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네요.

정말 극히 일부분의 얘기를 갖고 확대해서 관심거리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설사 그렇게 하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손 치더라도 타락한 어른들의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순수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생각입니다.

Daum관계자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이슈를 다룰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슈를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제목: 눈에 보이는 하자가 엉망입니다.

올릴 문서1.txt

제가 오늘 집에 오면서 302동과 309동, 308동 사이에 걸쳐있는 알뜰시장 공터를 계단으로 내려와 밟으면서 빗물이 바닥에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빗물이 움푹파인 공터블럭으로 잔뜩 괴여 신발이 침수될 정도까지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정석 회장님께서도 이거 분명 치명적인 하자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도 맨날 이곳 홈페이지에서 현재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떠드시고선 왜 이런 중요한 하자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이 글을 읽으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차 하자도 제대로 안되어 하자종료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홍보하시는데 그렇다고 하자기간 만료후에(2,3년차 하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중에 건설업자한테 하자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만 하실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하자를 주공측에 확실하게 보수토록 요청하고 안되면 강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근데도 이정석 회장님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선 일체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말만 하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회상을 해보면 이 회장님이 한빛하자발취보고서(3천만원 가량)만 돈들여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드셨지 그 이후엔 별로 하자보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보수를 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빛의 하자발취보고서가 주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강제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 지나간 얘기를 들추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하자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자보수보고서 따위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하자입니다. 빨리 "빗물고임"같은 하자가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엔 관리소에서 수동으로 롤라스케이트 장이나 공터에 괴인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런 땀질식으로 대중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공측에 확실한 빗물고임방지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에 안되면 다시한번 회장님이나 관리소쪽에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추신>

알뜰시장 공터 보도블럭이 덜컹거리는 하자도 여전히 남아있으니 그것도 보수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재경보와 스프링쿨러 점검비용에 대해서...

지난번 관리비 내역서의 잡지출에서 경보설비와 스프링쿨러 점검비용으로 850만원 가량이 지출되었는데요 제가 금액이 큰 관계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나름대로 점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세대 스프링쿨러는 아니었고 9개동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의 경보설비와 스프링쿨러 감지기 연결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동 복도와 계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디를 점검하고 공기압을 측정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나다니다가 점검하는 것을 살펴보지 못한 데다가 사진만 몇장 달랑 찍어놓고 점검내용만 문서로 정리한 상태로 관리소에서 화재설비를 점검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선 감사일정이라든지 동대표에서 접수한 점검회사 등의 정보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까마귀를 만들어 놓고 두줄의 잡지출 내역으로 지난달 이렇게 점검했으니 관리비내역서에서 850만원 청구한다고 해버리면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계속 추궁당하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제가 이번엔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 이 내용에 대해선 화재설비작동 여부를 궁극적으로 확인해 꼭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재설비 작동여부를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회장님이나 관리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이렇게 아파트 관리가 영성으로 진행되고 부당한 금액이 청구되고 있는데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것도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표들과 관리소가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제목: 동대표 결정사항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알려주십시오.

3기 동대표들이 출범하고 나서 제가 동대표회의에 한번밖에 참석하질 못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투명한 동대표를 표방하고 나선 회장이 동대표회의 일정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대표에서 동대표회의를 방송해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경비원 용역비와 청소비 인상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일체의 공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까 밑에서 말한 하자보수의 진행상황 같은 것을 관리비내역서에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릴 문서1.txt

1기에선 그나마 그런것들이 있었는데 2,3기는 그런면에서 더욱 형편없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기 전술 인데요 관리비가 싸다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곤란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관리비도 결코 싼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투명한 아파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추신>

관리비내역서에 밝히지 못할 거라면 게시판에는 꼭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동대표회의는 방송할 배짱이 없으면 공지라도 충실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게시판 공지는 광고위주로 쓰고 공지는 관리비내역을 활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맨날 누가 떼어버린다고 변명하실 것 같으면 아예 공지는 관리비내역을 사용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아님 스피커방송이나 누차 얘기한 케이블 송출을 이용하던지요. 지금의 방식은 너무나 맘에 안듭니다.

제목: 중요한 선거 잘 관리해야죠.

비록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아파트 일꾼을 뽑는 일인데 방송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선거관리 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단지 동대표 업무가 적절한 보상은 없고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동대표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감사님들한테는 1년에 두번 정도는 감사비용을 넉넉히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곳 홈페이지 관리자 분께도 홈페이지계정료를 드려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지금은 제대로 보상체계가 자리잡혀있지 않지만 모두가 노력해서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이 아파트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 입후보자가 미달되는 등 동대표선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통반장님들이 반상회를 소집해서 빨리 해당동에서 입후보자가 나올수 있도록 다 소간의 노력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아파트가 살기좋은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 문제있다 이윤찬 님 생각 / 2004.01.11

보통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정해나가는 약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너무나 많다. 다 불공정 약관들인데 이것들의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에 인터넷대란의 경우도 1인당 300원 수준의 보상도 못하겠다고 역소송을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연 300원의 피해밖에 되지 못할까?

제목: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에 즈음하여...

면적을 시가로 변경하면 세수가 폭증하는데 그럼 새로운 정책은 강남을 제외한 기존 주택거주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없이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지금까지 세금 정책은 강남강북간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불균형이었다. 즉 강남 거주자들이 최고시가의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부동산 투자)하면서도 같은 면적의 비강남거주자들보다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고 조세횡포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강남거주자들의 폭증하는 세부담을 강남 이외의 거주자들의 혜택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시가가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면적에서 시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효용을 세금의 효율조정을 통해 전국민에게 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에도 합치된 것이어서 나무랄데 없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사이 부동산 급등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의 가격담합인데 이들이 시가기준의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못된 행동을 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만약 이번에 새로운 세금정책으로 강남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도 기존 비강남 거주자들의 세금은 그것대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면 정부가 세금만 걷으려 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얻는 효용은 분배하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꼭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며 의견을 마친다.

제목: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패러다임이 문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사회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대학을 가기위해선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시험을 잘보게 하기 위한 상업적 학원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돼 결국 학부모들은 자식을 시험 잘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학원에 보내게 되고....

사람들은 이미 망국적인 사교육비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기업, 행정관청에서 부터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이런 망국적인 선발방법을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되기 마련이어서 시험이란 단순한 도구로 측정할 만큼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 매일 떠들면 뭐하는가 그런교육이 취직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선 쓸모없는 시험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직업교육은 결국 이렇게 실업 문제가 터져 온국민이 방황과 좌절감에 빠진 지금에서야 다시금 새로 시작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

그러나 여태까지도 사회나 학교에서는 정신을 못차려서 선생이나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소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짓밟고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대학입학시험에서부터 그런 선발방식을 강요하고 결국 그들이 진출해야할 사회, 직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을 우리모두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도덕적 가치와 학생의 소질, 취미, 장점과 단점을 보듬어 그야말로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얼마전 지방의 어느 고등학생이 사회를 비판해 투신자살한 사건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젊은 학생 모두가 고민하는 비애와 고충들이다. 내 자식은 그럴 일 없겠지 하며 자위하기 보다 그런 불합리한 패러다임들을 내 머리에서 개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문제는 언제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제목: 누군가는 소유하게될 부동산, 최선의 보유세 정책은...

내가 누차 보유세에 있어 강조한 점이 실수요자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종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은 소유와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종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시도돼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급매물로 시장에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매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부동산 업자를 비롯한 일부 악덕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싹쓸이 매집한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의 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집 여러채를 소유해도 세금이 적으니 그들은 계속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그렇게 집값이 오를 기회만 엿보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담합을 조장하기도 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상실시키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정부가 강력한 판단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괜히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 국민모두에게 '세수확대'라는 오해를 사지 말고 아까 말한 다주택자들의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부과 체계도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채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주지하 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꺼꾸로 이지 않는가? 또 현재 양도세 취득세 부과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일명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도 반기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책 입안자들께서도 본인의 뜻을 잘 이해했으리란 생각이 들며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의 의견을 마칠까 한다.

제목: 카드회사 빚을 왜 정부가 대신 매입해 주는가?

왜 카드회사 빚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고 총대를 매야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심지어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채권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확보한뒤 나중에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니 그때가서 헐값매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는지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부가 과거서부터 자꾸 그러니까 정경유착 정경유착 말들이 많은거다. 왜 자꾸 오해를 살만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대기업 카드회사를 살리는데 뜻이 있는게 아니라 정경유착의 부산물에 눈이 어두워 이같은 일을 벌이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늘 그래왔지만 부실기업을 철저히 그 책임을 감내하도록 놔두는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이란 명분으로 돈을 수혈해 주기에 바빴다. 그럴 돈 있으면 정말 IMF를 거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몇개 더 살리는게 더 이익이란 생각이 든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다른 한켠에서 자금난에 쓰러지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돈놀이를 하는 대기업 카드회사에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주다니...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제목: 조달청 전자입찰의 문제점...

입찰자격은 품질 위주로 작성하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꼭 보면 입찰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형 특정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찰자격에 품질 제한 조건만 명확히 제시하면 영세업체등 가격이 낮은 업체가 참가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사이 전자입찰의 문제점은 너무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다. 누가 그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는가? 비싸다고 다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건 필자는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다.

제목: 또 대학을 보면 학생은 줄었는데 등록금은 오르잖아요.

학교가 돈벌이의 전당으로 전락해 버린 거지요. 학부모들도 명칭하게 그런 상업적인 돈벌이 도구로 전락해 버린 학교에 못 보내서 안달이구요.

그도 그럴것이 원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회사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으니 대학과 사회의 암묵적인 보상체계가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는거지요.

당국은 대학에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원칙이지만 그걸 이용 대학은 더욱더 등록금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이전보다 훨씬 줄었는데도 말입니다. 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고질적인 병폐가 만들어낸 특혜입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대학도 들어갈수가 없으니 이런 기막힌 교육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당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돈없는 사람들은 명문대에 진학할 수도 없고 중요한 위치에 오를수 없는 건가요?

그같은 세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체계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조만간 대학은 계속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 가지 않고도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확실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교육과 보상, 성공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온 사회에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돈 많이 드는 대학에 굳이 보내려고 애쓰겠습니까? 저라도, 예를들어 서울대에 돈내고 억지로 입학하라고 해도 안갑시다.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제목: 통합요금제가 성공하려면...

통합요금제가 성공하려면 지금의 역세권내 교통구역의 요금을 현재의 반 수준으로 내리고 장거리 환승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막히는 버스를 지하철역까지 타고 가는데 해마다 비싼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었고 또 오를때는 매번 물가상승률의 수배에 달하는 요금인상으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마을버스가 400원 수준인데 이것도 통합요금 제와 함께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누가 기본요금을 500원이상 내면서 장 거리 할증요금을 내가며 버스를 타려고 하겠는가? _ _ _

제목: 싼게 비지떡?

난 싼게 비지떡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전 구입한 HDTV수신카드도 어떤 회사것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오히려 호환성은 떨어졌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이 보드에도 잘붙고 동작도 잘했다. 동작을 잘한다는 것은 동영상 캡처해보면 아는데 대부분의 비싼 카드에선 동영상을 저장할때 오류가 나지만 싼고 좋은 제품은 화질도 좋고 예리없이 동영상이 하드에 잘 저장이 된다.

일반인들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좋고 싸면 품질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난 경험상으로 그 원리가 틀리다는걸 터득했다. 심지어는 1.5리터 우유만 보더라도 똑같은 우유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났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분유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구매할때 그 성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똑같은 성분이 들었는데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을 많이 지불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때 싼 가격으로 나온 물건중에 성분이나 사양을 비교하고 좋아 보이는 제

품을 선택하는게 바른 구매법이다.

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목격했다. 어떤 상품이 처음엔 좋은 품질로 시장에 출시되어 인정받았지만 그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만 브랜드를 보고 비싼 가격에 그 물건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큰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가격과 품질, 사양을 꼼꼼히 따져 새로운 제품을 개척해 구매하는 사람은 시간은 좀 들어도 그만큼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은 구매에 있어 최대의 적이다. 언제나 시장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을 평가하고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목: 17대 국회, 네티즌들이 감시하자!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 한나라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새로짚 부대인 우리당의 집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100석이상 의석확보는 전체탄핵지지의원들의 50%라는 당선통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한나라당)와 진보적 보수(열린우리당)의 구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고루한 정치무대에서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내기 힘들다.

이들 각 정당에서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내력만 보더라도 거의다가 검증되지 않은 일류대 출신이거나 당내를 떠돌아다니는 정치철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터넷정치파워를 이끌어왔던 네티즌들을 무시한 처사이면서 동시에 능력있는 신인들을 공천하기보다 파벌과 인맥에 따라 공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같은 경우는 투표를 끝마치고 개표결과를 지켜보면서 각당의 대표나 후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네들이 또 우리 선량한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을 투표나 종용하는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뒤돌아서 뒤통수를 열라 쳐대지나 않을까 걱정부터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각종 법안들을 다루면서 온갖 못된 짓들을 골라서 했고 심지어는 그걸 나무라서 처벌하려는 사람을 탄핵한다고 으름장을 놓는것도 모자라 처벌대상자를 감옥에서 꺼내주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국회가 어떠했든지간에 우리는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새로 뽑았다. 그들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든 우리는 나머지 4년을 또다시 구경꾼으로서 지내야만 한다. 설사 그들이 국회에, 행정부에, 법원에 불을 지르며 돌아다녀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필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원가하면, 새로 출범한 이들 17대 국회를 남은 임기동안 잘 감시하면서 우리 네티즌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조직력과 파워를 다져나가는데 정신을 집중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혹은 우리중에 누군가가)가 꼭 온라인상에서나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키워 나간다고보다 21세기에 걸맞는 만인이 평등한 전자민주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과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에 가깝다.

사실 이번에 필자도 민주노동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긴 했지만 그네당에서 네티즌파워를 언급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외치는 것을 선거기간내내 구경하질 못했다.(물론 당선된 이후에는 일부 언급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네티즌들과 그네당들이 코드를 달리한다는 뜻이며 우리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민주노동당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다. 그것은 다른말로 우리 네티즌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개혁일선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무급(無給)으로 여론을 조성해 유급(有給)의 정치인들을 선발하는데만 앞장서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21세기 개혁코드를 향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외될 까닭이 없는 것이며 이제는 개혁드라이브 전면에서 우리 네티즌들이 나서야 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생각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특정 네티즌 세력의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공부, 그리고 구현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중 누군가가 강한 디지털마인드를 갖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그런 보수 정치인들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논의해야 한다. 정치는 세력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정치인이 많을수록 원하는 목적은 빨리 달성되리라고 보여진다.

필자도 디지털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력과 능력이 많이 부족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여지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공계 계통의 실무기술자들이 차기국회나 행정부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본인이 실무경영자를 지칭하지 않고 실무기술자를 지칭한 것은 실무기술자가 전자민주네트워크 구현엔 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탈사이트에서 구현되어 있는 네티즌커뮤니티도 벤처경영자들이 기술자들을 고용해 마련해 놓은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프로그램기술자들을 홀대하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그것은 포탈사이트의 인재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기술자모집은 항상 맨뒤에 위치하고 있고 대우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전자민주네트워크를 진두지휘할 최고책임자는 경영능력을 겸비한 시스템통합(SI)실무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프로그램기술자들이 정계에 진출해야만 기존 보수구태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인프라를 보면 많은 정보화가 진행돼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공식계 관료들의

올릴 문서1.txt

행정서식과 수많은 주식회사들의 기업정보가 완전히 은폐되어 있다. 즉 정보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폐단은 여러번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과거엔 실시간으로 모든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요사이의 정보기술은 그걸 가능케 해준다. 만약 공개해야할 마땅한 정보들이 지금에 와서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존 세력의 저항이라고밖에 규정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소수의 국회가 정책과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네티즌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하면 "폐단"이란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네티즌들 중엔 기업가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며 우리같은 선량한 서민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들은 서민으로 행사하다가도 기업가로 행동할 것이고 공무원으로 행사하다가도 서민으로 행동할 것이다.

궁극적인 전자민주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의 의사 하나하나가 정교한 정보인프라 안에서 정량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런걸 도입하기 전에 전국민의 1인 1아이디 발급과 정확한 신원확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검증기구를 따로둘 필요성이 극대화된다.

그때까지는 우리 네티즌들이 17대 국회를 감시하면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원내 진출을 위한 역량을 지금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야 한다. 그 역량을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많이 키워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나 후자나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력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공직계(정치인 포함)에 많이 진출해야 몽롱한 꿈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아래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을 검색할 수 있는 의안검색배너를 달았다. 나머지 4년동안 전술한 내용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열심히 그들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면서 여기에 일조할 수 있는 네티즌이 되었으면 한다.

<p>♣음악 듣기..</p>

【인간 정체성에 대한 회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
【달을듯 달을듯 멀어지는 전성시대...】
【상실이라는 고착된 자아...】
『한계로부터 탈출』이라는 몸부림...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그래서 안된다...】
【나의 인생목표는 무엇인가?】
【인생목표와 현실과의 괴리감...】
【화려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
【정체된 존재, 희망은 없는가?】

<p align="center"><embed src="http://user.chol.com/~blrun/temp/noending.wma" type=video/x-ms-asf>

이승철의 네버엔딩스토리</p>

<p align="center"><embed src="http://user.chollian.net/~blrun/temp/bgsnd2.asx">

미디어플레이어로 연속듣기</p>

<p align="center"><EMBED
src="http://mfiles.naver.net/9344a67f683057e4cf/data2/2003/11/9/11/skycountry.wma"
width=300 height=45 type="text/plain; charset=EUC-KR" autostart="true">
송골매의 "하
늘나라 우리님"</p>

유료회원제 뮤크....

=====

<embed src="http://www.mukeybox.com/link/link_play2.asp?sid=155312" hidden="true" autostart="true">
mms://218.38.55.220/LOW_WMA_MUKE031219/043/43375.asf

9.Kiss - I Finally Found My Way

<A href="http://www.mukeybox.com/link/link_play2.asp?albumid=156236
&nid=156236&nid=279731&nid=30826&nid=156196&nid=156194&nid=156198
&nid=156227&nid=156209&nid=16352">1번 ~ 9번까지 연속듣기 클릭

((뮤크박스 가사보기 소스))

http://www.mukeybox.com/artist/view_lyric.asp?sid=곡번호

올릴 문서1.txt

((백스뮤직 가사보기 소스)) >
http://lyrics.bugs.co.kr/lyrics/lyrics.asp?music_idx=곡번호
<IFRAME src="http://mmail.bugs.co.kr/mletter1/write_mail.asp?music_idx=kor0154093"
frameBorder=0 width=1 scrolling=no height=0>

((푸키 가사보기 소스))
http://music.puckii.com/lyrics/lyrics.asp?song_code=곡번호

((렛츠뮤직 가사보기 소스))
http://www.letsmusic.co.kr/Search/Lyric/Lyric.asp?songid=곡번호

((나우뮤직 가사보기 소스))
http://www.nowmusic.co.kr/2002/player/lyrics.php?code=곡번호
<embed src="mms://211.239.127.237/now12gayo/j1770202.wma">

=====

<iframe src="http://player.bugs.co.kr/mv30/mvplayer.asp?idx=mkor07177865,"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원하는 위치에 그림 하이퍼 텍스트
<DIV style="LEFT: 380px; POSITION: absolute; TOP: 8px"><A href="http://blog.empas.com/blrun2 "
target=_blank><IMG
src="http://ncolumn-image1.daum.net/_home/f/y/02Ffy/1078308816706_msn_sam.jpg" border=0
target="_blank"> </DIV>

♣♣♣♣안녕하세요. 개운하다 철학관 지기입니다.

저희 철학관이 얼마전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이벤트도 하고 있아오니 언제 한번 들르셔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저희 철학관은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고 작명,사주,택일,사업지도,적성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직은 화려하지 않지만 40년의 주역도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답답한 마음을 확실히 열어드
리겠아오니 관심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유쾌한 하루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MSN 프로필

안녕하세요. 이윤찬입니다.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18-209-5482

음악감상을 즐기는 편이고 특히 클래식을 부담없이 듣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등산과 배드민턴입니
다.

컴퓨터 200% 사용하기, 전자제품 활용하기, 고장난 기계 손보기, 공상, 정치/경제/사회/교육

관심분야: 과학, 심리학, 정신의학

1. 오늘 내가 가는 길로 내일 청소년이 온다.
2. BLADE RUNNER의 Roy가 마지막 장면에서 말한,
"Time to die...^^;"
3. 길가에 덩그러니 남은 나무를 바라보며...

"나 살아 숨쉴제 그대에게 향그런 꽃향기를 주었고 싱그런 초록을 주었고 시원한 그늘을 주었네. 나
이제 죽어 그대에게 편안한 쉼 곳을 주노라!"

<http://www.blrun.net/>